

임업관측사업

2009년 사업결과와 2010년 추진계획

장 철 수 연구 위원
석 현 덕 연구 위원
김 영 단 연구 위원
김 현 근 위 측 연구 원
김 성 주 위 측 연구 원
윤 범 석 위 측 연구 원

머 리 말

우리 연구원에서는 산림청의 지원 하에 2003년 밤을 시작으로 표고버섯, 대추, 뽕은 감 등 임업관측대상 품목을 확대해 오고 있다. 내년에는 산채류, 조경수 등을 포함하여 관측대상 품목이 늘어날 예정이다. 향후 DDA, FTA 등 국제교역 여건의 변화와 함께 임산물관측에 대한 수요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업관측사업의 목적은 임산물의 재배에서부터 생산, 판매, 유통, 수출입에 이르기 까지 단기 동향을 분석 및 전망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관련 종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데 있다. 산지에는 품목별 표본 임가, 통신원 및 지역자문위원을 두고 있고 중앙에는 중앙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객관적이며 내실 있고 신뢰성이 높은 관측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월보발행과 함께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업관측정보를 개설하여 임업관측 월보와 연차동향/전망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관측결과를 다양하고 신속하게 분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발행된 월보는 PDF 파일로도 변환되어 게시되므로 쉽게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 자료는 2009년도 임업관측사업의 결과물과 2010년도 임업관측사업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 자료가 임업관측을 이해하고 홍보하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 바라며,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산림청 관계자와 임업관측사업에 협조해 주신 중앙 및 지역자문위원, 표본 임가, 시·군 담당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목 차

제1장 임업관측사업의 개요

1. 임업관측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
2. 임업관측사업의 기본방향 2
3. 임업관측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3
4. 기대 효과 5

제2장 2009년도 임업관측사업 추진 결과

1. 임업관측 대상 품목, 금액 및 내용 6
2. 임업관측사업 추진일정 및 체계 7
3. 임업관측사업 추진결과 9
4. 임업관측사업의 만족도 평가 13

제3장 2010년도 임업관측사업 추진계획(안)

1. 대상 품목 및 내용 32
2. 세부 추진계획 33
3. 임업관측사업의 내실화 추진계획 36

제4장 임산물 수급동향과 전망: 밤, 표고버섯

1. 밤 39
2. 표고버섯 52

- 부록 1: 임업관측(밤) 월보 67
2. 임업관측(표고버섯) 월보 97
 3. 임업관측(대추, 뽕은 감) 월보 131
 4. 2009년도 임업관측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173

제 1 장

임업관측사업의 개요

1. 임업관측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1. 임업 관측사업의 필요성

-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가 진행됨에 따라 임산물 시장은 국내 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시장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음.
 - 해외 시장의 변화는 국내 생산과 가격,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임산물 생산계획 수립에서도 이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이 필요하게 되었음.
- 시장동향과 가격, 해외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임산물의 시장 출하를 안정시켜서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임가 소득을 안정시키게 될 것임.
-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 감 등 단기소득 임산물은 생산액과 생산자수도 많으며 농산촌 주민의 소득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의 계절성을 가지므로 생산자들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출하시기에 따라 생산자들의 판매가격 및 소득이 달라지고 도로와 교통의 발전으로 물류 환경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임산물 판매에서도 속도와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음.

- 양질의 임산물 공급안정과 생산자 소득보장을 위해 수급안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임산물 시장의 정보수집과 분석, D/B 구축, 관측 및 관측결과물의 분산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임업관측 사업이 필요함.

1.2. 임업관측사업의 목적

- 임업관측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임업부문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임산물 생산 및 유통 종사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관련 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대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단기적인 출하와 가격, 출하시기 등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임산물 재배자들이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출하를 조절하는 의사결정을 돕고, 궁극적으로 임산물의 수급안정은 물론 임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임.
- 임산물 생산 및 경영의 합리화, 유통기능의 원활화 등을 위해 임산물 재배동향, 가격동향 및 수급동향에 관한 중단기 예측정보를 개발하고 관측정보의 제공을 통해 임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

2. 임업관측사업의 기본방향

- 작황, 가격, 수출·입, 해외시장 동향에 관한 종합적인 관측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임산물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유도하여 생산자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자율영농의 기반을 마련함.
 - 광범위한 정보수집 체계 확립
 - 종합적 정보 분석 능력제고
 - 관측정보 분산체계 확립
- 임산물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정보수집 체계를 확립함.

3. 임업관측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3.1. 임업관측사업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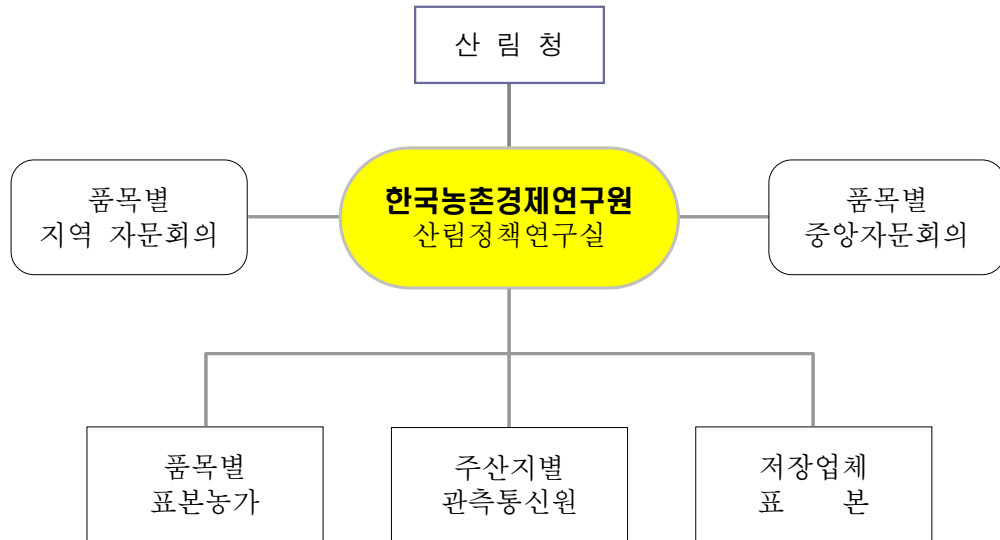
- 품목별 시장동향 및 단기전망
 - 품목별 재배동향 및 단기에측
 - 품목별 작황 및 출하 동향, 가격동향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품목별 해외시장 동향 및 전망

- 연차 동향 및 중장기 전망
 - 거시경제, 품목별 국내외 시장의 연차동향
 - 품목별 수급에 대한 중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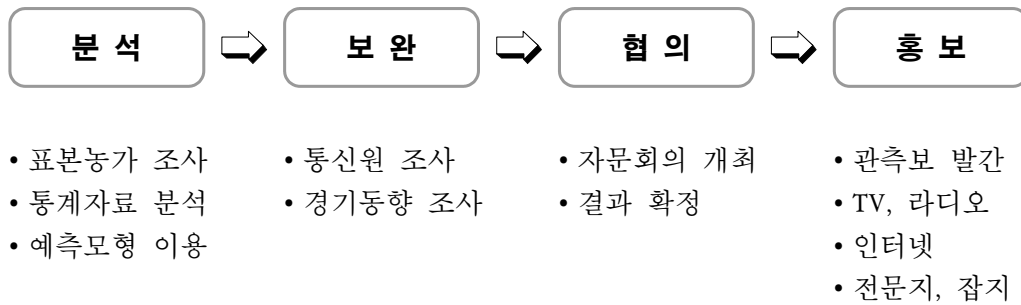
- 관측/전망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임업관측 홈페이지 구축, 콘텐츠 개발·유지 및 관리
 - 관측 D/B구축 및 시황 정보 제공
 - 관측정보시스템 개발
 - 단기 예측기법, 중장기 예측모형 개발

3.2. 임업관측사업 추진 체계

3.2.1. 관측사업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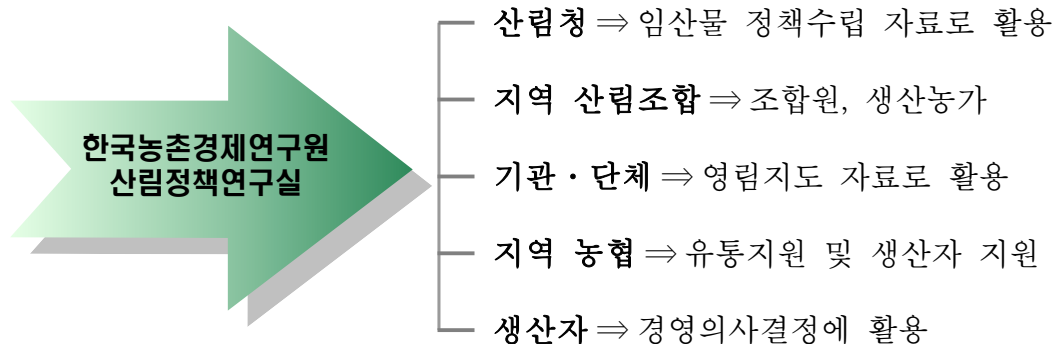
3.2.2. 관측 방법



3.2.3. 관측결과 홍보

- 본안 홍보 : 임업관측 월보, 인터넷
- 진단 홍보 : 필요시
- 해설 홍보 : 전문지, 신문, TV, 라디오
- 교육 활동 : 생산자, 유통업자, 관련자 교육

3.2.4. 홍보 체계



4. 기대 효과

- 임산물의 품목별 수급동향, 가격 동향 및 미래정보를 제시하여 생산자들의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배품목의 선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함.
- 정확하고 신속한 시장정보의 제공을 통해 임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
- 임산물의 시장 정보를 인터넷, TV, 라디오, 월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하여 생산 및 유통 종사자의 정보수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상시적인 시장정보의 수집으로 신속하게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음.

제 2 장

2009년도 임업관측사업 추진 결과

1. 임업관측 대상 품목, 금액 및 내용

1.1. 대상 품목 및 금액

- 대상 품목: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감
- 사업 금액: 4억원

1.2. 관측 내용

- 품목별 월별 가격동향 및 전망
- 품목별 월별 작황 및 재배 동향
- 품목별 생산지 시장 동향
- 품목별 소비지 시장 동향
- 품목별 저장 동향
- 해외시장 동향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소비자 구매행태 조사

2. 임업관측사업 추진일정 및 체계

2.1. 관측 일정

□ 밤

- 준비작업: 2009년 1~2월
- 월보발간: 2009년 3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격월(3,5,7,9,11월) 15일 발행하되,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8, 10월은 속보를 발간
 - 발행부수: 3,000부

□ 표고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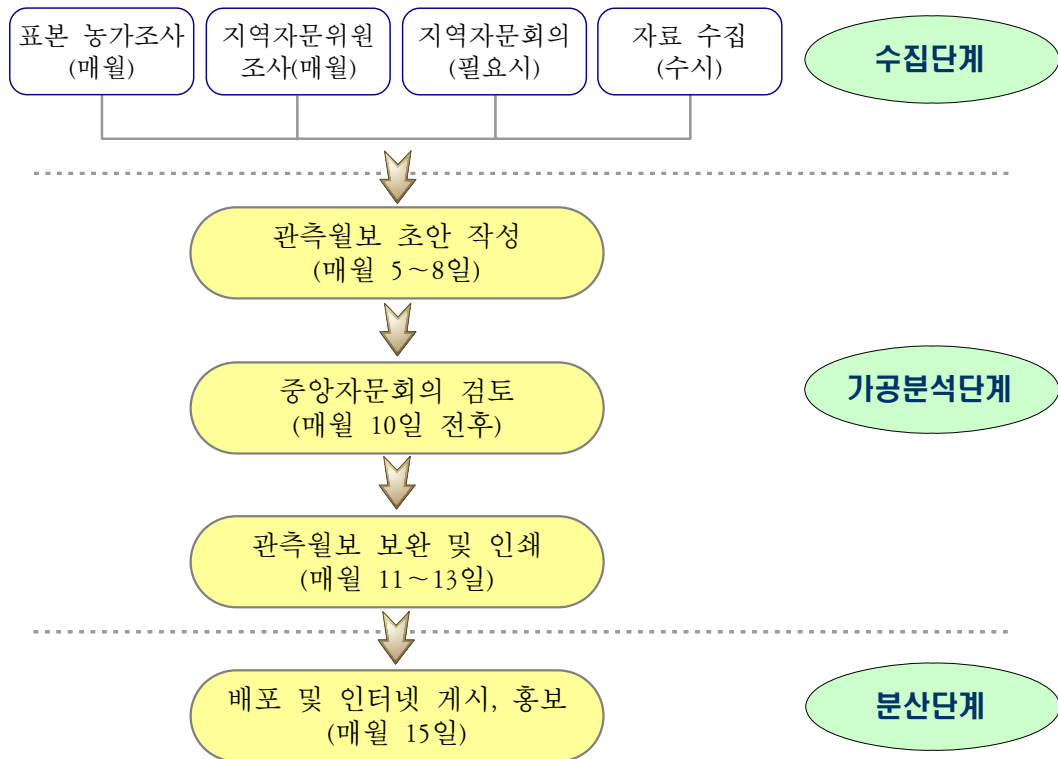
- 준비작업: 2009년 1~2월
- 월보발간: 2009년 3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매월(12, 1, 2, 8월 제외)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3,000부

□ 대추·뽕은감

- 준비: 2009년 2~7월
- 월보발간: 2009년 4월부터¹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 4, 8, 9, 10, 11월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 각각 2,000부

¹ 당초 8월부터 발행예정이었으나 생육상황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재배자들의 요청에 의해 4월 15일 1회 발행 추가

2.2. 임업관측사업 추진 체계



2.3. 관측결과의 분산체계

- 임업관측보 우편 발송
 - 월 보 (매월 15일 우송)
 - 산림청, 산림조합,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표본농가, 지역자문위원, 광역시, 시·군 지방자치단체, 생산지 농협, 기타
- 전문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에 게시
 - KBS 텔레비전, 라디오 등
 - 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
 -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http://www.forestinfo.or.kr>)
 - 각종 전문지에 게재: 한국임업신문, 한국농정, 한국영농신문, 원예산업신문, 농축산신문, 버섯정보신문, 농축유통신문, 전업농신문, 월간 버섯 등
 - 임업후계자, 산림정책평가위원, 산림정책모니터요원 등에게 인터넷발송

3. 임업관측사업의 추진 결과

3.1. 지역자문위원 및 통신원, 표본농가 정비

□ 밤

- 지역자문위원 및 표본농가: 표본농가 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주산지를 고려하여 지역자문위원 및 통신원 23명을 유지하되 지역, 연령, 재배경력, 최근 3년간 평균 응답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자문 및 통신원 3명, 표본농가 20명 교체.

□ 표고버섯

- 지역자문위원 및 표본농가: 표본농가 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 30명을 유지하되 지역,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하였음.

□ 대추

- 지역자문위원 및 표본농가: 표본농가 145호(예비농가 2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 24명 가운데 지역,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표본농가 8명, 지역자문 2명을 제외하여 표본농가 137명, 지역자문위원 22명으로 하였음.

□ 뽕은감

- 지역자문위원 및 표본농가: 표본농가 109호(예비농가 2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 29명 가운데 지역,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표본농가 18명, 지역자문 2명을 제외하여 표본농가 91명, 지역자문위원 27명으로 하였음.

3.2. 중앙자문위원 선정 및 운영

□ 중앙자문위원 선정

- 임업관측(밤) 중앙자문위원은 기존의 중앙자문위원 수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업계 사정에 밝고, 경력,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교체하였음
 - 밤: 중앙자문위원 14명 중 3명을 교체

- 임업관측(표고버섯) 중앙자문위원의 경우, 기존의 중앙자문위원 수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업계사정에 밝고 경력 및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교체하였음.
 - 표고버섯: 중앙자문위원 15명 중 2명을 교체
- 임업관측(대추·뽕은감) 중앙자문위원은 기존의 중앙자문위원 수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업계 사정에 밝고 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교체 및 보완하였음.
 - 대추: 중앙자문위원 10명 중 2명을 교체
 - 뽕은 감: 중앙자문위원 13명 중 4명을 보완

□ 중앙자문위원회 운영

- 현지에서 수집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내용을 검증하는 등 관측월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 생산자단체 대표, 유통업 종사자, 산림조합중앙회, 산지농협대표, 수출입조합 대표, 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자문위원회를 조직 및 운영하였음.
 - 중앙자문위원회는 월보 발행 월의 10일을 전후하여 개최하여 발행예정 월보의 내용을 검토.

표 2-1. 2009년도 품목별 임업관측 중앙자문위원

구분	밤(14명)	표고버섯(15명)	대추(10명)	뽕은 감(13명)
정 책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계장 산림청 품목담당자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 산림청 산림경영소득소득계장 산림청 품목담당자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계장 산림청 품목담당자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계장 산림청 품목담당자
재 배	이관재 (신지식임업인) 김천호 (한국밤재배자협회장) 김학렬 (산청군 산림조합장) 이기호 (순천시 울림회장) 김의충 (소태밤농원 대표)	서홍석 (한국표고버섯생산자협회) 심광택 (한국표고버섯생산자협회) 정의용 (전국뽕밤표고재배자협회) 김용경 (장흥유치농협)	김영식 (임당 대추농장) 이성희 (청도 개인농장) 손진현 (밀양대추작목반대표) 박대회 (전보은대추연합회장)	정용두 (상주꽃감F&G영농조합법인) 이상길 (영동감연구회) 임정규 (완주감연합회장) 유인상(영암 개인농장) 조정환(산청 개인농장)
유통	양길원 (중부시장 신광상회) 오종성 (부여밤영농조합대표) 박찬관 (농협발전국협의회장)	김기순 (산림조합중앙회) 고홍천 (농협버섯협의회장) 이정무 (부농표고) 민중우 (동화청과)	이준행 (한국농산) 한재선 (동광물산)	양길원 (중부시장 신광상회) 박성길 (매전 감가공연구회)
무 역	차우진 (농림수출입조합) 이승호 (산림조합중앙회)	이 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박진출 (대일상사)		
기 술	황명수 (국립산림과학원)	윤갑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창현 (산림버섯연구소)	조기동 (청도군농업기술센터)	조두현 (상주감시험장) 조기동 (청도군농업기술센터) 박부인 (상주꽃감연합회고문)

3.3. 관측월보 발간 부수 및 배포

- 밤, 표고버섯 관측월보는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월 3,000부를 각각 발행하였음. 수실류(대추·뽕은 감)는 생산농가, 생산자 단체 등의 수요증가로 대추와 뽕은 감으로 품목을 분리하고 발행 횟수를 1회 늘려 2,000부씩 5회 발행하였음.
- 총 발간된 임업관측월보는 75,090부로서 2008년의 62,500부에 비해 12,590부가 증가하였음

표 2-2. 임업관측월보의 월별 품목별 발간부수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밤	-	-	3,500	-	3,500	-	3,550	3,550	3,550	3,550	3,550	-	24,750
표고버섯	-	-	3,400	3,400	3,400	3,400	3,400	-	3,400	3,400	3,400	-	27,200
대 추	-	-	-	2,360	-	-	-	2,360	2,360	2,360	2,360	-	11,500
뽕 은 감	-	-	-	2,300	-	-	-	2,320	2,340	2,340	2,340	-	11,640
합계	-	-	6,900	8,060	6,900	3,400	6,950	8,230	11,650	11,650	11,650	-	75,090

- 임업관측월보는 전면 칼라로 바뀐 이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표지디자인 및 내용구성 스타일을 소비자위주로 바꾸었고, 산림청, 지역 산림조합,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의 주요 기관과 임업관측사업에 참여하는 표본 농가 및 자문위원, 임가경제조사 대상자, 지역 생산자단체 등에게 배포되었음.

표 2-3. 임업관측월보의 품목별 배부처

단위: 배부수

배부처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 감
□ 산림청	98	80	65	65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105	144	75	75
□ 표본농가	2,387	2,064	1,670	1,410
□ 지역산림조합	5,250	4,528	1,820	1,820
□ 산림조합중앙회	70	80	50	50
□ 임업후계자협회	70	80	50	50
□ 자문위원	1,750	1,800	935	935
□ 지방자치단체	4,221	7,760	2,480	2,480
□ 지역단위농협	4,422	1,600	1,000	1,000
□ 농업기술센터		5,344	2,475	2,575
□ 임가경제조사 대상자	1,272	1,312	210	225
□ 지역생산자단체	4,697	1,880	230	350
□ 기 타	408	528	440	605
계	24,750	27,200	11,500	11,640

3.4. 임업관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임업관측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품목별 관측월보와 연차 전망 등 단기 및 중·장기 관측사업 결과를 게시하여 운영하고 있음.
 - 홈페이지의 관측월보를 인쇄하기 편리한 화면으로 개선
 - 홈페이지에 관측월보 원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제공
 - 대추와 뽕은감을 분리하여 각각 게시하였음.
- 산림청 홈페이지 및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에 본 연구원의 임업관측정보 시스템을 링크하여 바로 임업관측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3.5. 관측결과에 대한 홍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 「농업전망 2009」에서 임산물의 동향과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발표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제공되었음. 또한 이 발표는 농업전문방송과 YTN 등을 통해 중계되었고 KBS, MBC, SBS 등에서 큰 비중으로 다루어졌음.
- 밤 재배 순회 교육, (사)한국 밤 재배자협회 워크숍을 포함해 표고버섯 연찬회 등에서 주요 교육 자료로서 그리고 홍보자료로서 활용되었음.
- 관측월보의 내용은 발행 월의 20일을 전후하여 한국임업신문, 한국농정, 한국영농신문, 원예산업신문, 농축산신문, 버섯정보신문, 농축유통신문, 전업농신문, 월간 버섯 등 9개 전문지에 게재 되었음.

3.6. 중장기 관측

- 2009년 농업전망대회(2009.1.)에서 「임산물 수급동향과 전망: 밤, 표고버섯」에서 중장기 전망 결과를 발표하였음.

3.7. 관측품목 재배자 만족도조사

- 관측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였음.
 - 재배자 의식조사: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 감(2009.11.2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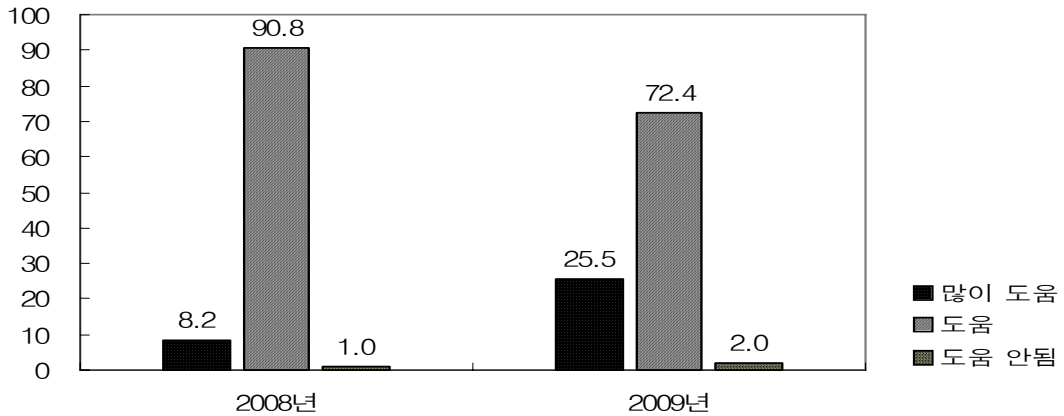
4. 임업관측사업의 만족도 평가

4.1. 의식조사 개요

- 임업관측 월보발간에 대한 재배자 의식조사는 지역자문위원(통신원 포함) 및 표본농가 총 400명(품목별 1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전화조사로 진행되었음.
- 재배자 의식조사의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음.
 -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
 - 경영 의사결정 시 기여 부문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품목별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품목별 소비확대를 위한 추진 정책
-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는 2008년에 실시된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였으며, 신뢰수준의 변화,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등 주요 특징들에 대해 기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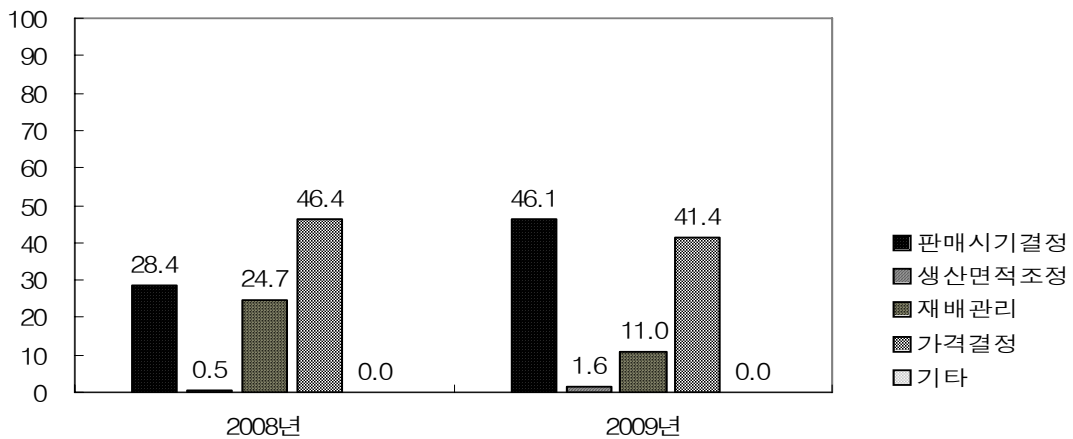
4.2. 밤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

-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
 -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 임업관측(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25.5%,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72.4%,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의견이 2.0%로 대체로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18.4% 감소하였으나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17.3% 증가하여 전체적인 도움 정도는 질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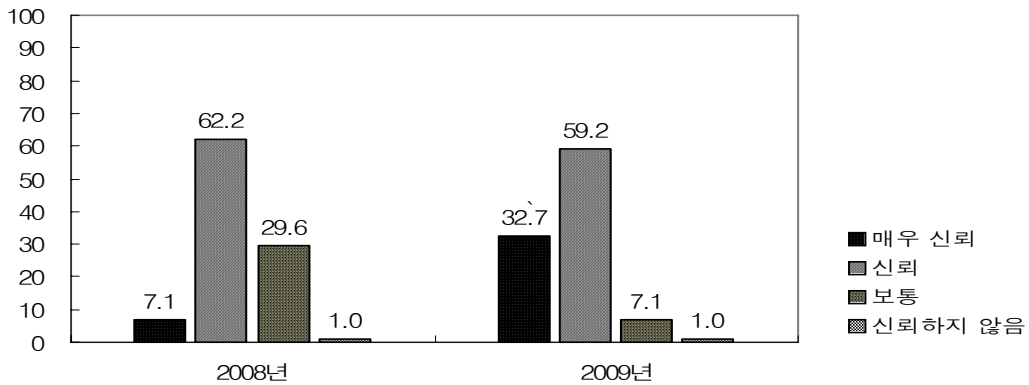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기여 부문

- 관측정보(밤)가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판매시기 결정이 46.1%로 1순위, 가격 결정이 41.4%로 2순위, 재배관리 결정이 11.0%로 3순위, 생산면적 조정이 1.6%로 4순위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가격 등에 따른 판매시기 결정에 대한 기여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재배관리, 가격 결정에 대한 기여율은 다소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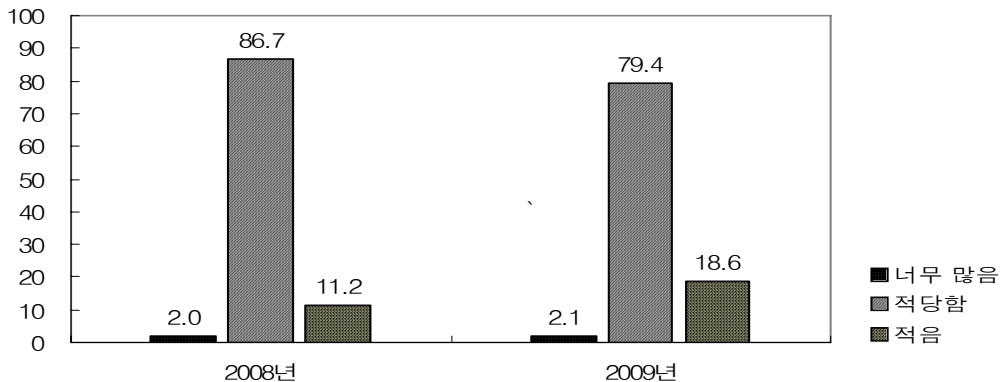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정보(밤)에 대한 신뢰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신뢰가 32.7%, 조금 신뢰가 59.2%, 보통 7.1%, 신뢰하지 않음이 1.0%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보통이 22.4% 감소하였지만 매우 신뢰가 25.5%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신뢰수준은 매우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도 관측사업의 내실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밤 재배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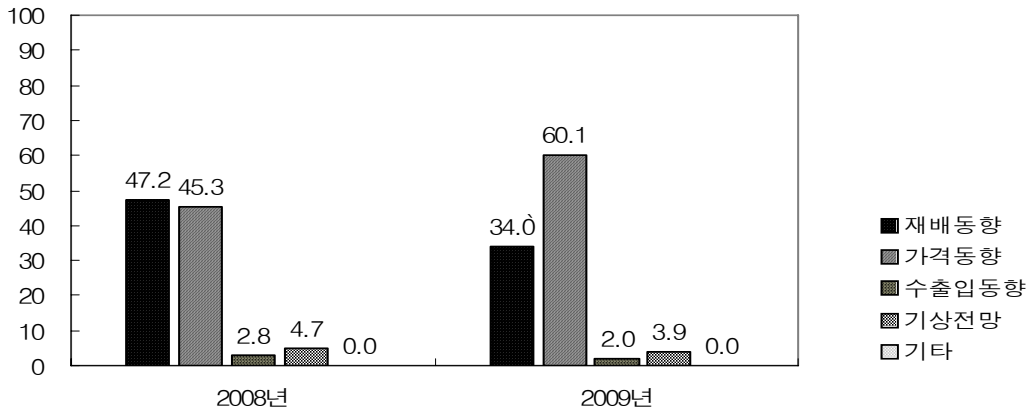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밤)의 발간횟수에 있어서는 현행 7회(3,5,7,8,9,10,11월)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79.4%, 적다는 의견이 18.6%, 너무 많다는 의견이 2.1%로 전반적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음.
- 2008년과 비교할 때 발간횟수가 적다는 의견이 7.3% 증가하였으나 발간 횟수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발간횟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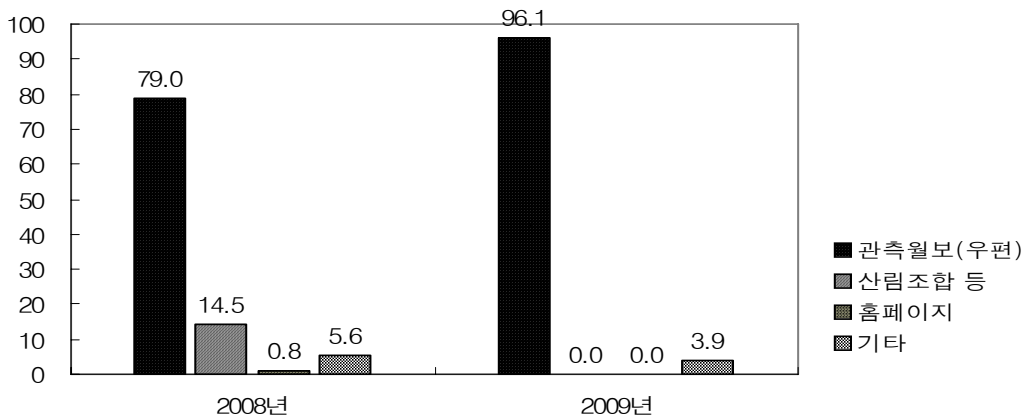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월보(밤)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가격동향이 60.1%, 재배동향이 34.0%, 기상전망이 3.9%, 수출입동향이 2.0%로 가격동향과 재배동향에 대한 활용이 높게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생산 임가가 주로 활용하는 부문의 특징은 가격동향에 대한 것으로 1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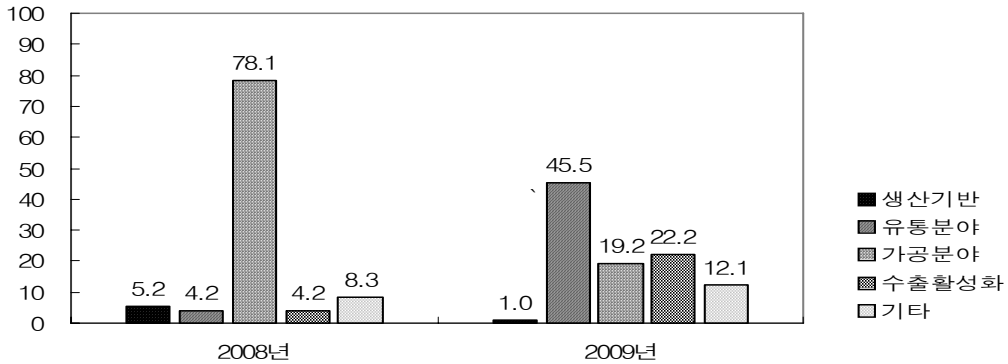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현재 밤 생산 임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으로는 관측월보(우편송부)가 96.1%, 기타 농민신문이 3.9%로서 주로 농경연의 우편송부에 의한 월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관측월보(우편송부)에 의한 정보 접근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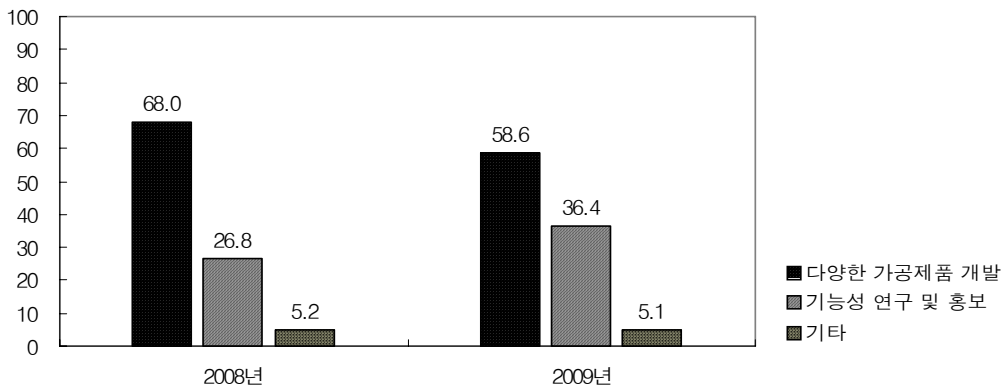
○ 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중 시급한 분야로서 유통분야가 45.5%로 1순위, 수출 활성화 분야가 22.2%로 2순위, 가공분야가 19.2%로 3순위로 나타났으며 생산 분야와 기타(가격 안정화 등) 분야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가공분야에 대한 정책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던 2008년과는 달리 유통, 수출 활성화, 가공분야에 대한 정책 수요가 고르게 중시되었으며 특히 유통분야에 대한 정책요구도가 높아져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밤 소비확대를 위한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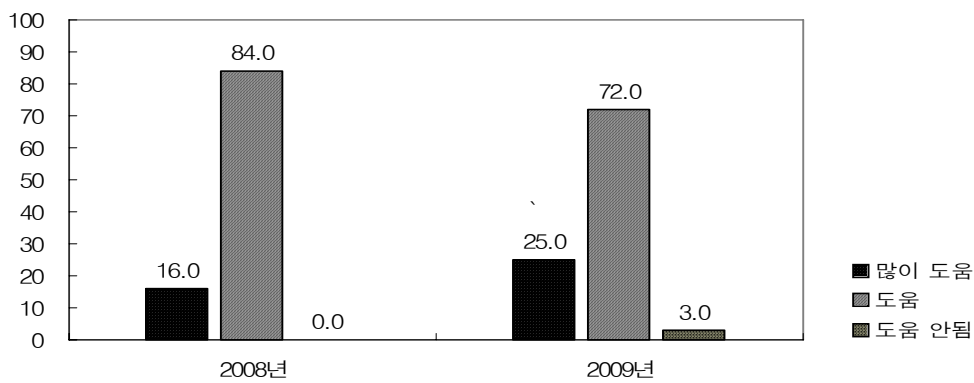
- 밤 소비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에 있어서는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이 58.6%, 밤에 대한 기능성 연구 및 홍보가 36.4%, 기타가 5.1%로 가공제품 개발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밤에 대한 기능성 연구 및 홍보에 대한 요구가 9.6%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제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3. 표고버섯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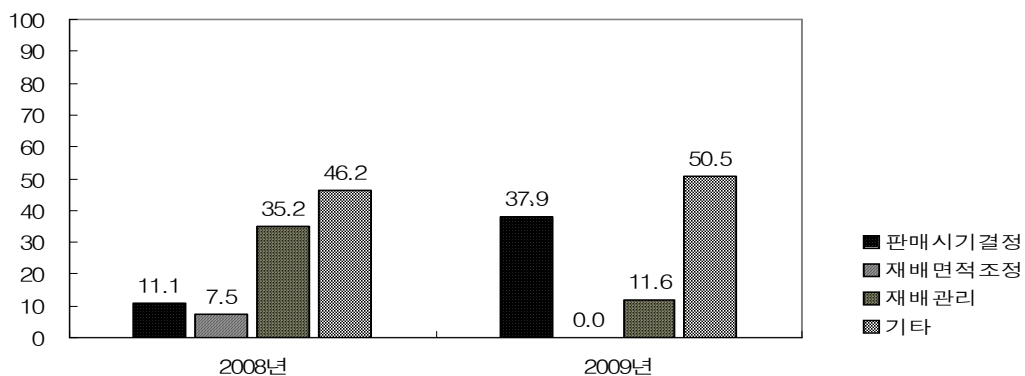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

-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 임업관측(표고버섯)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25.0%,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72.0%, 도움이 안되었다는 의견이 3.0%로 대체로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12.0% 감소하였으나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9.0% 증가하여 도움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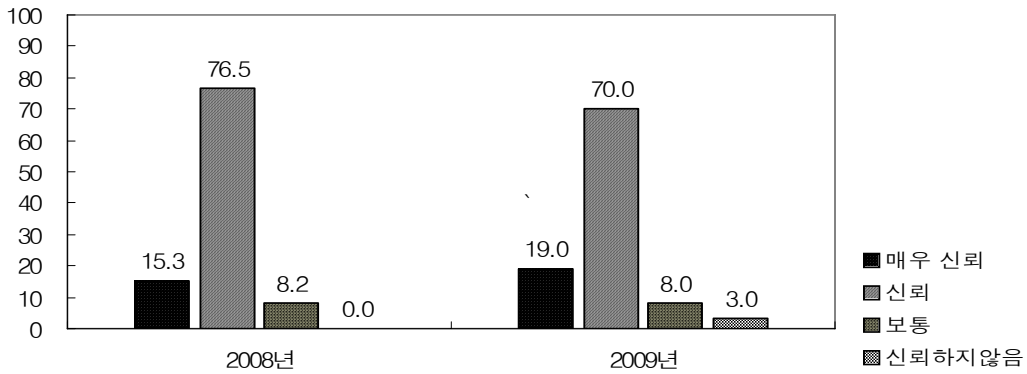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기여 부문

- 관측정보(표고버섯)가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타가 50.5%로 1순위, 판매시기 결정이 37.9%로 2순위, 재배관리가 11.6%로 3순위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재배관리 부문의 기여도는 감소하고 기타부문에서 가격동향에 따른 가격결정에 크게 기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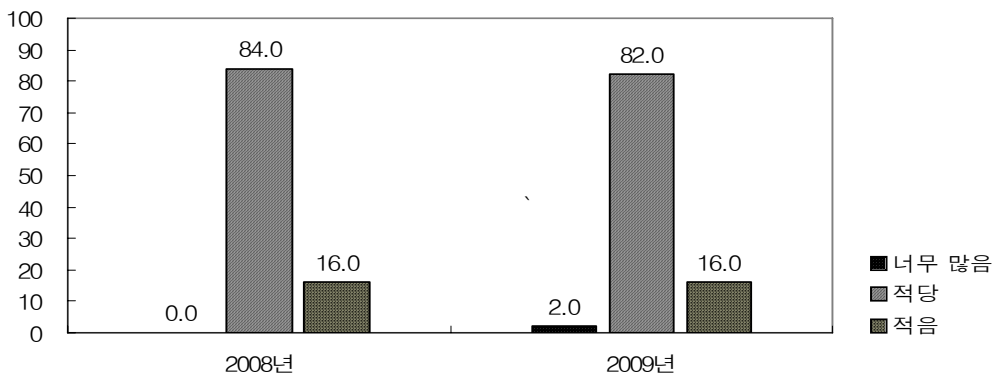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정보(표고버섯)에 대한 신뢰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가 19.0%, 조금 신뢰가 70.0%, 보통 8.0%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매우 신뢰 비율이 3.7%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관측사업의 내실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표고버섯 재배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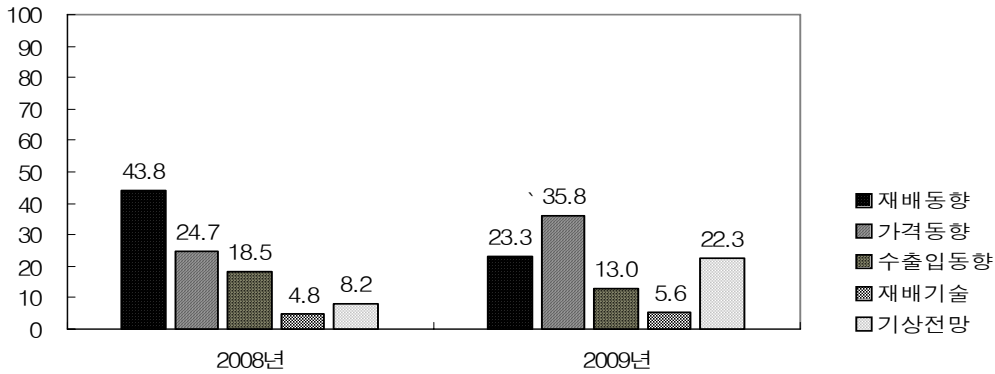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표고버섯)의 발간횟수에 있어서는 현행 8회(3,4,5,6,7,9,10,11월)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2.0%, 적당하다는 의견이 82.0%, 적다는 의견이 16.0%로 전반적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음.
- 2008년과 비교할 때 발간횟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2.0% 감소하고, 많다는 의견이 2.0% 증가 하였으나 발간 횟수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발간횟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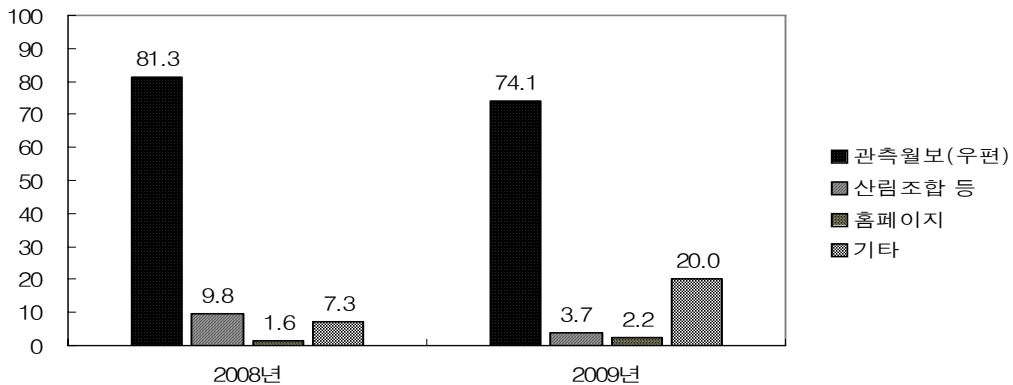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정보(표고버섯)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가격동향이 35.8%, 재배동향이 23.3%, 기상전망이 22.3%, 수출입동향이 13.0%, 재배기술이 5.6%로 가격동향에 대한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가격동향, 기상전망, 재배기술에 대한 활용은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재배동향, 수출입동향 등에 대한 활용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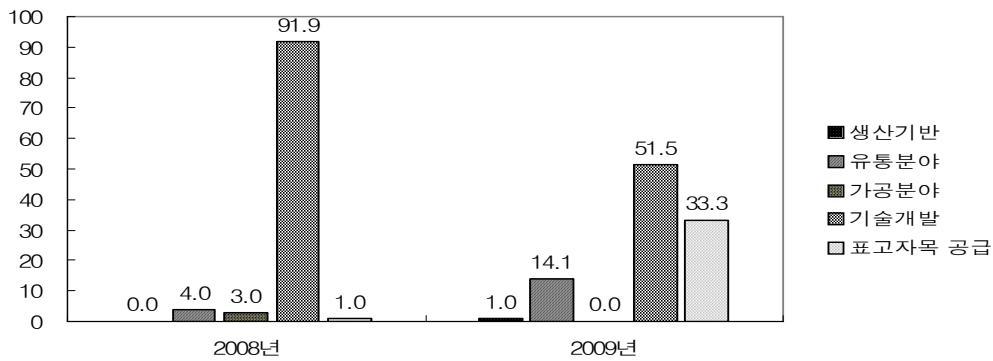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현재 표고버섯 생산농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으로는 관측월보(우편 송부)가 74.1%, 기타가 20.0%, 지자체, 산림조합, 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서가 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가 2.2%로서 주로 농경연의 우편 송부에 의한 월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관측월보(우편송부)와 산림조합에 의한 정보 접근이 감소하고, 월간버섯, 인터넷, 생산자간의 정보공유 등 기타 방식에 의한 정보 접근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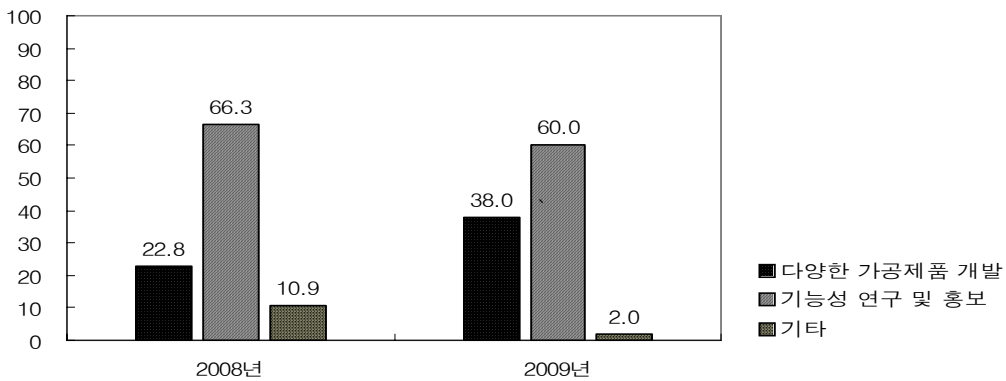
○ 표고버섯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표고버섯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중 시급한 분야로서 종균 및 재배 등 기술 개발 분야가 51.5%로 1순위, 표고자목의 공급방안 마련이 33.3%로 2순위로 나타났으며 유통, 생산, 가공분야는 정책 우선순위가 높지 않게 나타남.
- 종균 및 재배 등 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정책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던 2008년과는 달리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각 분야가 고르게 중시되었으며 특히 표고자목 공급방안 마련에 대한 정책요구도가 높아져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표고버섯 소비확대를 위한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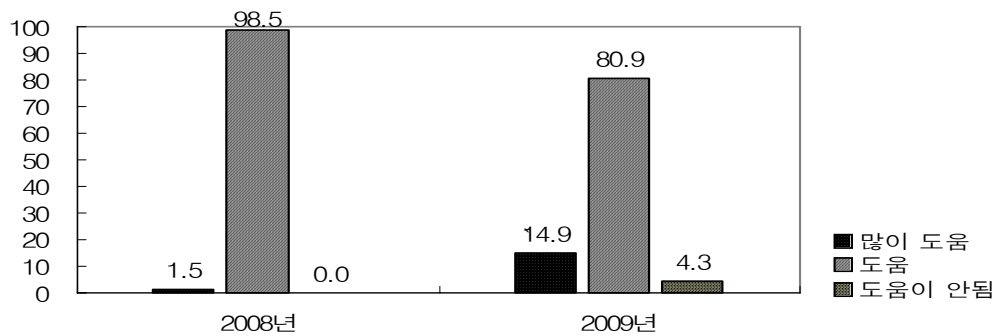
- 표고버섯 소비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표고버섯에 대한 기능성 연구 및 홍보가 60.0%,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이 38.0%, 기타(판로개척 등)가 2.0%로 기능성 연구 및 홍보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기능성 연구 및 홍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과 비교할 때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에 대한 요구가 15.2% 증가하여 가공제품 개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4. 대추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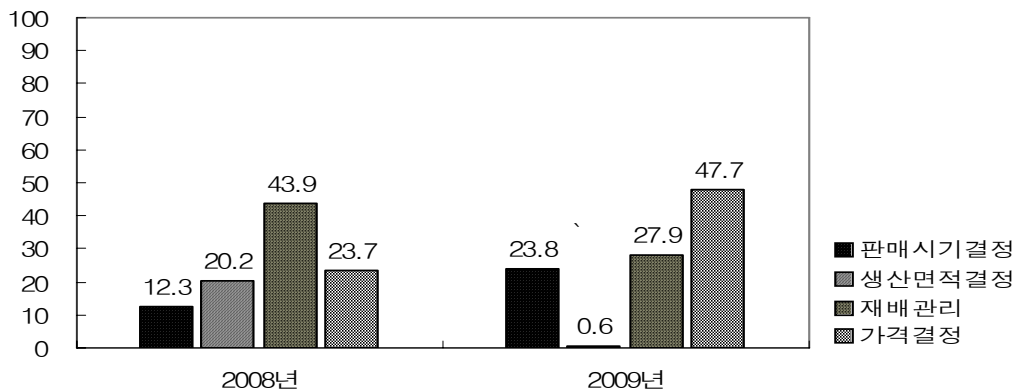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

-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 임업관측(대추)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14.9%,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80.9%,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의견이 4.3%로 대체로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13.4% 증가하여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기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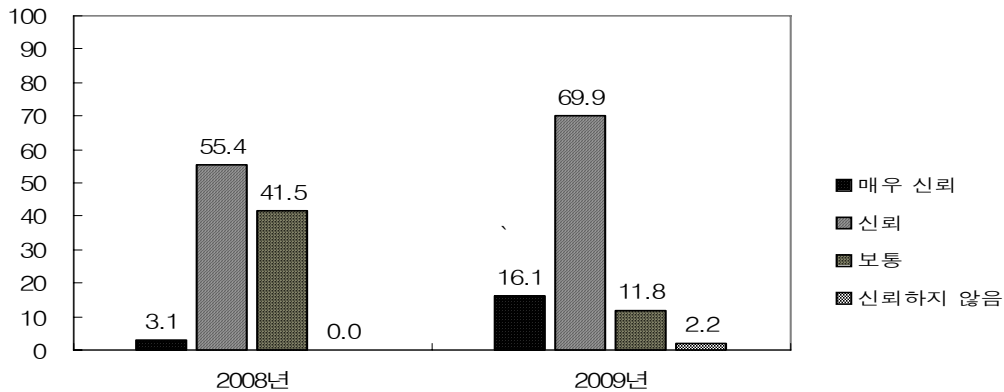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기여 부문

- 관측정보(대추)가 경영 의사결정 시 영향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대추 가격결정이 47.7%로 1순위, 재배관리가 27.9%로 2순위, 생산량 및 면적 조정이 23.8%로 3순위, 판매시기 결정이 0.6%로 4순위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가격결정, 판매시기에 대한 기여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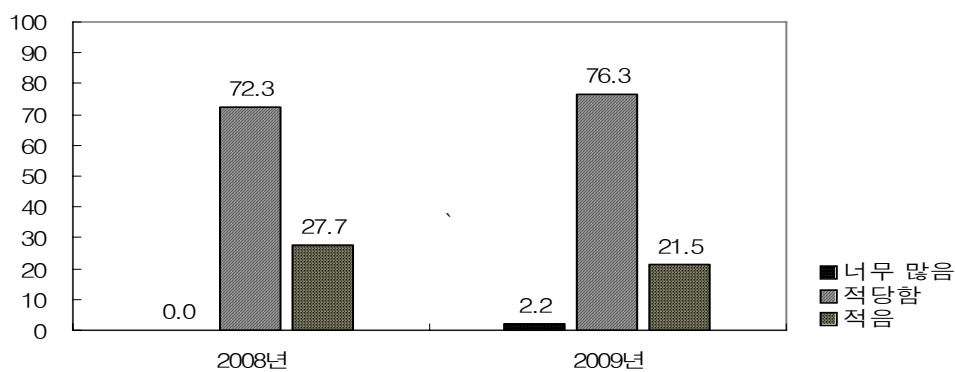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정보(대추)에 대한 신뢰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신뢰가 16.1%, 신뢰가 69.9%, 보통 11.8%로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매우 신뢰가 13.0% 증가, 신뢰가 14.5% 증가하였고, 보통은 29.7%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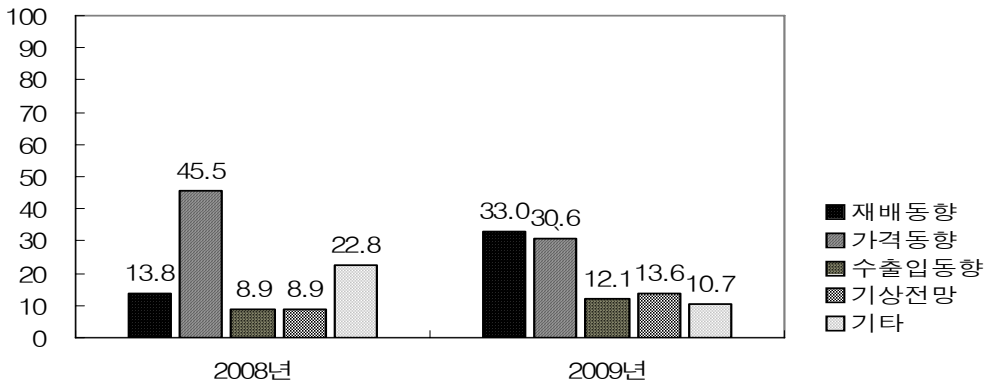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대추)의 발간횟수는 현행 5회(4,8,9,10,11월)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76.3%, 적다는 의견이 21.5%, 너무 많다는 의견이 2.2%로 전반적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적당하다는 의견이 4.0% 증가하였고, 적다는 의견이 5.2% 감소하여 현행 월보 발간횟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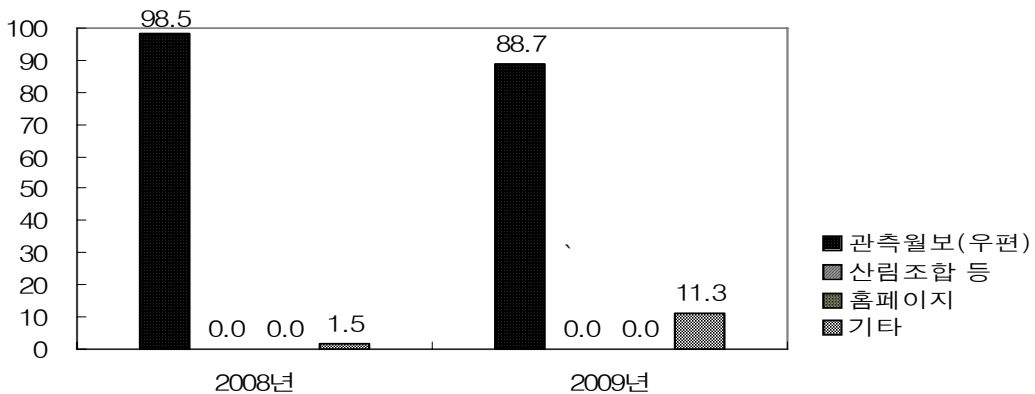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정보(대추)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재배동향이 33.0%, 가격동향 30.6%, 수출입동향과 기상전망이 각각 12.1%, 13.6%로 재배동향 및 가격동향의 활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재배동향 자료가 19.2%, 기상전망 자료가 4.7%로 활용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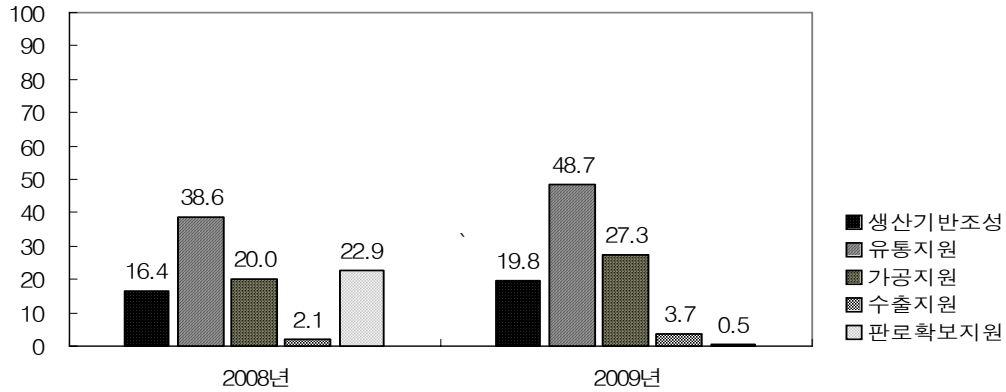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현재 대추 생산농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으로는 관측월보(우편송부)가 88.7%, 기타 주변 작목반, 농민신문 등이 11.3%로 주로 농경연의 우편송부에 의한 월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주변의 작목반, 농민신문 등에 의한 의존도가 9.8% 높아졌으나 전반적으로는 우편송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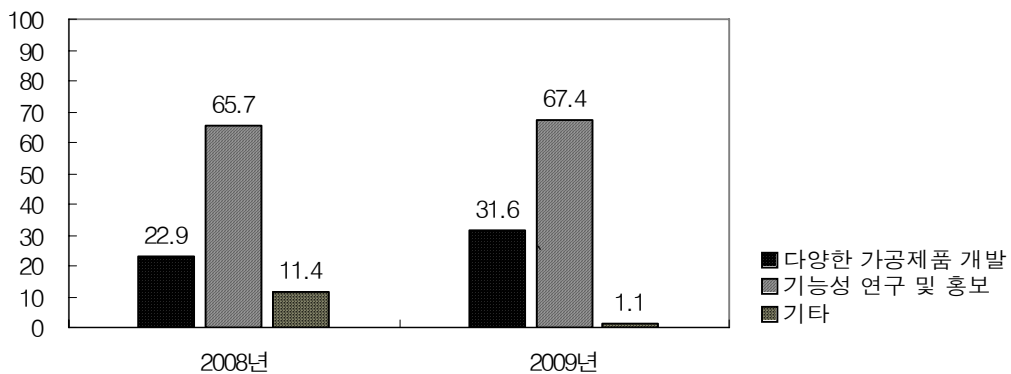
○ 대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대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중 시급한 분야로서 유통지원이 48.7%로 1순위, 가공지원이 27.3%로 2순위, 생산기반조성이 19.8%로 3순위, 수출지원이 3.7%로 4순위, 판로확보지원이 0.5%로 5순위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유통지원과 가공지원에 대한 정책수요가 각각 10.1%, 7.3% 증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대추 소비확대를 위한 정부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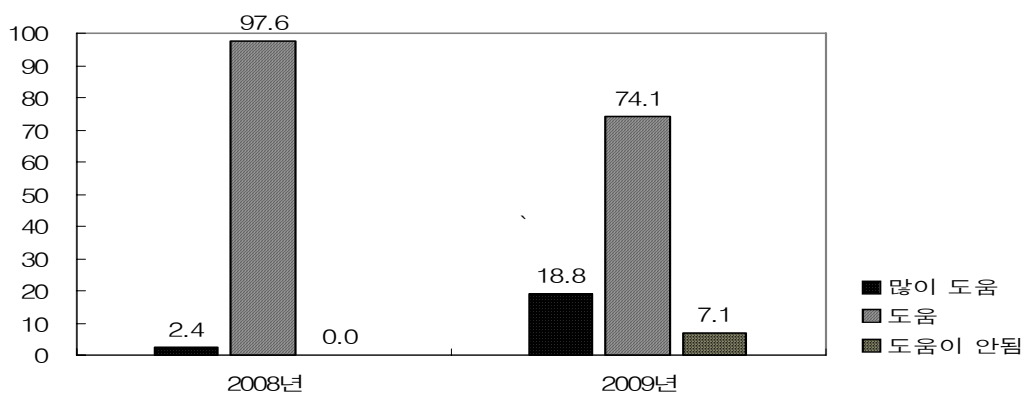
- 대추 소비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에 있어서는 기능성 연구 및 홍보가 67.4%,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이 31.6%로 기능성 연구 및 홍보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기능성 연구 및 홍보에 대한 수요가 1.7%,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수요가 8.7%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정부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5. 뚝은감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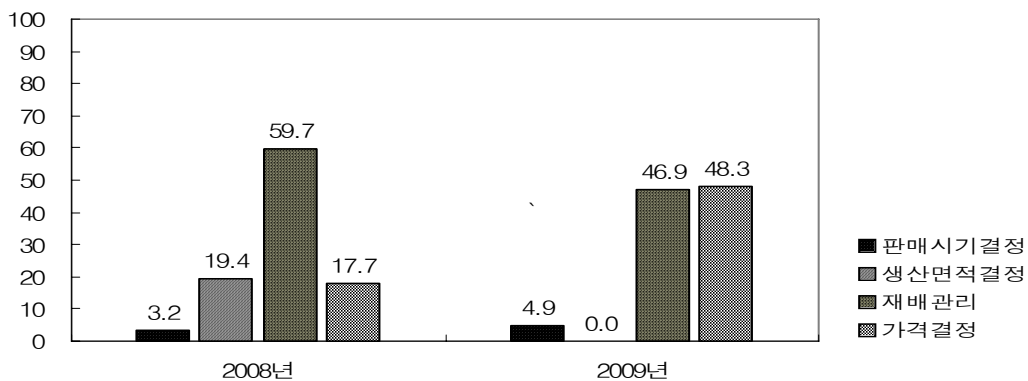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

- 관측(뚝은감)정보의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18.8%,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74.1%,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의견이 7.1%로 나타나 대체로 관측정보가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많이 도움됨 의견이 16.4% 증가하여 전체적인 도움 정도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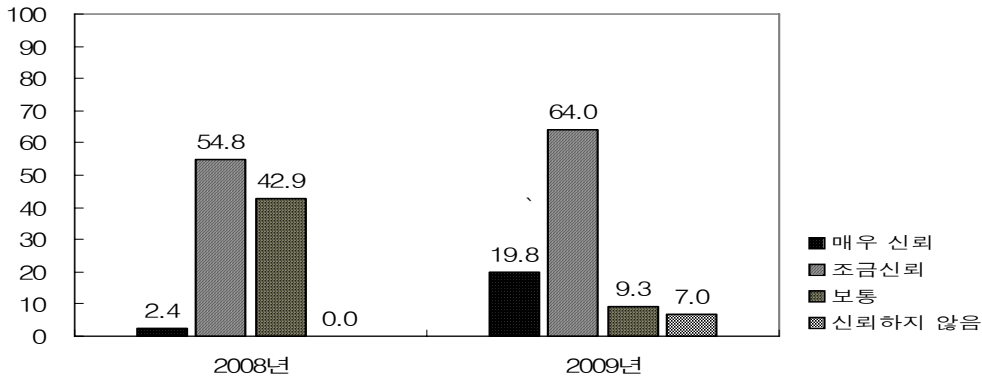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기여 부문

- 관측정보(뚝은감)가 경영 의사결정 시 영향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하 시 뚝은감 가격결정 48.3%, 재배관리 46.9%로 경영 의사결정 시 주로 가격결정 및 재배관리 부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생산면적결정에 대한 기여도는 감소하고 가격결정에 대한 기여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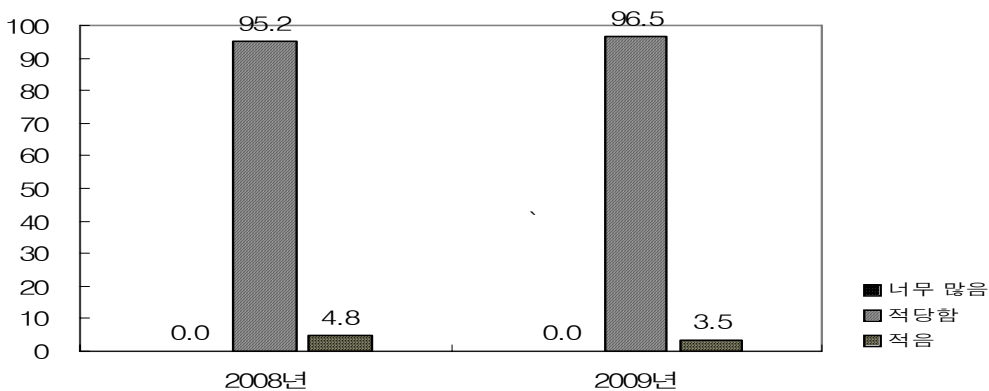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정보(뚝은감)에 대한 신뢰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신뢰가 19.8%, 조금 신뢰 64.0%, 보통 9.3%로 대체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매우 신뢰 17.4% 증가, 조금 신뢰 9.2% 증가하여 전반적인 신뢰도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있으므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향후 관측사업의 내실화를 꾸준히 추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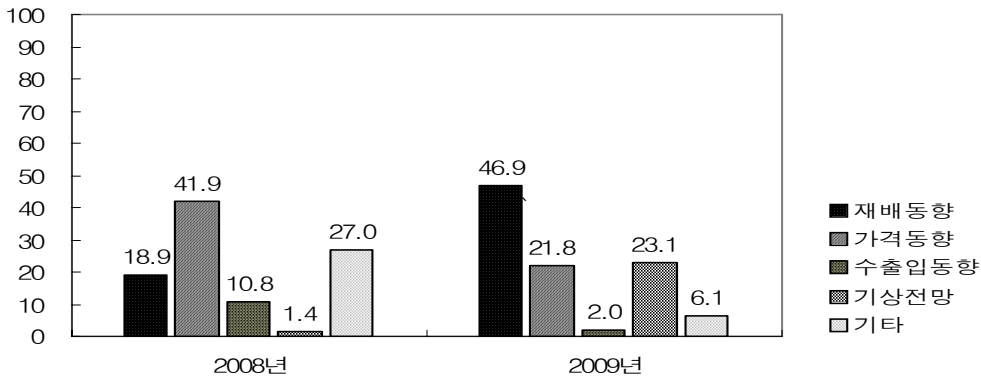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뚝은감)의 발간횟수에 있어서는 현행 5회(4,8,9,10,11월)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96.5%, 적다는 의견이 3.5%, 너무 많다는 의견은 없어 발간횟수는 적당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조사된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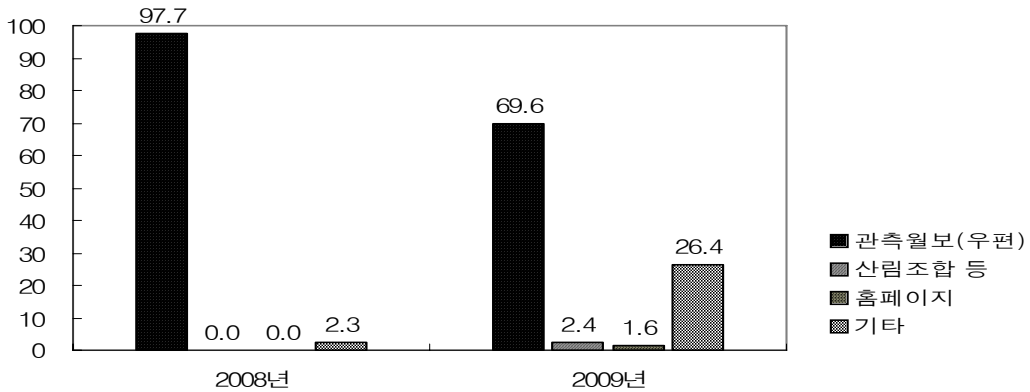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정보(뚝은감)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재배동향 46.9%, 기상전망과 가격동향이 각각 23.1%, 21.8%로 재배동향, 기상전망 및 가격동향이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재배동향 및 기상전망 부문에 대한 활용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생산 임가들이 기상피해 증가로 뚝은감 재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상 및 재배동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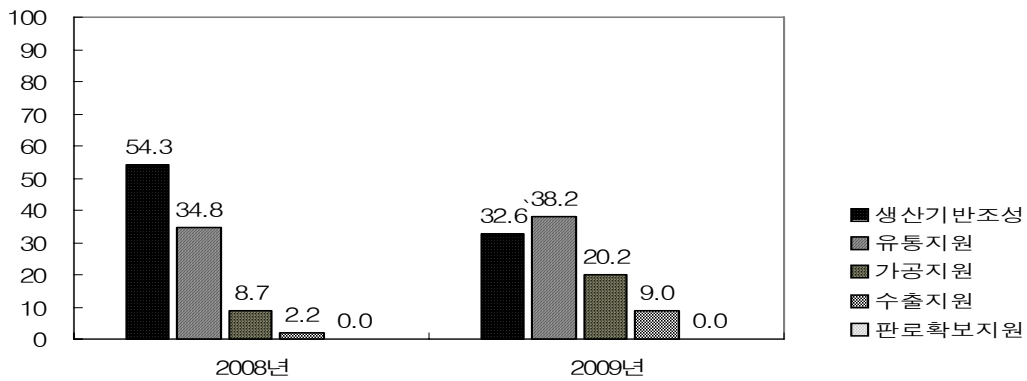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생산 임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으로는 관측월보(우편송부)가 69.6%, 기타 농림기술센터를 통해서 26.4%, 산림조합·지자체 등을 통해서 2.4%, 산림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1.6%로 주로 우편송부 및 농림기술센터를 통해 관측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우편송부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농림기술센터를 통해 관측정보를 접하는 비중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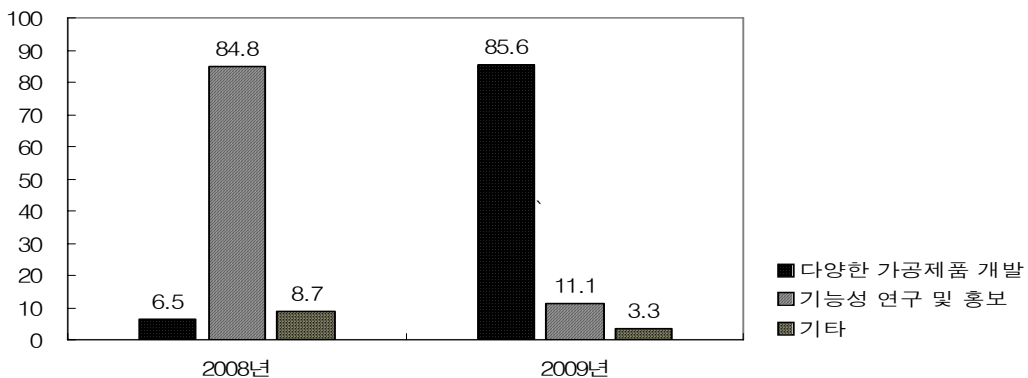
○ 뚝은감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뚝은감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중 시급한 분야로서 유통지원 38.2%, 생산기반조성 32.6%, 가공지원 20.2%, 수출지원 9.0%로 생산기반조성 및 유통·가공지원에 대한 정책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생산기반 조성보다는 가공·유통 및 수출 등 생산 이후의 사업지원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짐.



○ 뚝은감 소비확대를 위한 추진 정책

- 뚝은감 소비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에 있어서는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85.6%, 기능성 연구 및 홍보 11.1%, 기타(판로개척, 직거래 등) 6.6%인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뚝은감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뚝은감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4.6. 재배자의 대정부 건의 사항

4.6.1. 밤

-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 다양한 밤 가공제품 개발 및 가공 산업 육성
-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지원
- 밤 작업로 등 생산기반 지원
- 유통정보 및 유통구조 개선
- 직거래 등 판로개척 다변화
- 수입억제와 수출활성화 정책 마련
- 항공방제횟수 늘릴 필요
- 밤 수확기 등에 따른 인력난 해결

4.6.2. 표고버섯

- 우량종균 개발
- 병충해 방제 기술 개발
- 가격 안정화 및 소비 촉진
- 수입 원산지 표시 강화
- 안정적인 자목 공급 및 톱밥재배 지원 강화
- 별채 허가기준 완화
- 기술지도 및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 유통정보 및 유통구조 개선
- 고온피해 방지 위한 시설 및 생산기반지원
- 표고 재배법간의 차별화 제도 마련
- 인력 부족 문제 해결

4.6.3. 대추

- 직거래 등 판로개척 다양화
- 전문재배기술인 육성을 통한 재배기술 교육 강화
- 대추 기능에 대한 소비자 홍보활동 지원 강화
- 대추전문 병해충 방제약제 개발 및 보급
- 가공제품 개발 및 가공 산업 육성
- 유통정보 및 유통구조 개선

- 비가림 재배시설 등 생산 지원시설 확대
- 생대추 저장기술 개발

4.6.4. 넓은감

- 수출활성화 지원
- 생산기반시설 지원 확대(저온저장고, 건조시설, 관수시설 등)
- 유통정보 및 유통구조 개선
- 감 관련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 가공제품 개발 및 가공 산업 육성
- 가격 안정화
- 수확기 인력부족문제 개선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제 3 장

2010년도 임업관측사업 추진 계획(안)

1. 대상 품목 및 내용

□ 대상 품목 및 금액

- 대상품목: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 감, 산채류, 조경수
- 금액: 6억원

□ 관측 내용

- 품목별 월별 작황 및 재배 동향
- 품목별 월별 출하와 저장, 가격 동향과 전망
- 품목별 생산지와 소비지 시장 동향
- 품목별 수출과 수입 동향
- 품목별 해외시장 동향
- 소비자 구매행태 조사

2. 세부 추진계획

2.1. 추진 목표

- 임업관측 사업의 내실화
- 임업관측 정보의 폭넓은 분산체계 구축

2.2. 추진 일정

□ 밤

- 준비작업: 2010년 1~2월
- 월보발간: 2010년 3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격월(3,5,7,9,11월) 15일 발행하되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8, 10월은 속보 발간
 - 발행부수: 3,550부

□ 표고버섯

- 준비작업: 2010년 1~2월
- 월보발간: 2010년 3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행일정 : 매월(12, 1, 2, 8월 제외)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 3,400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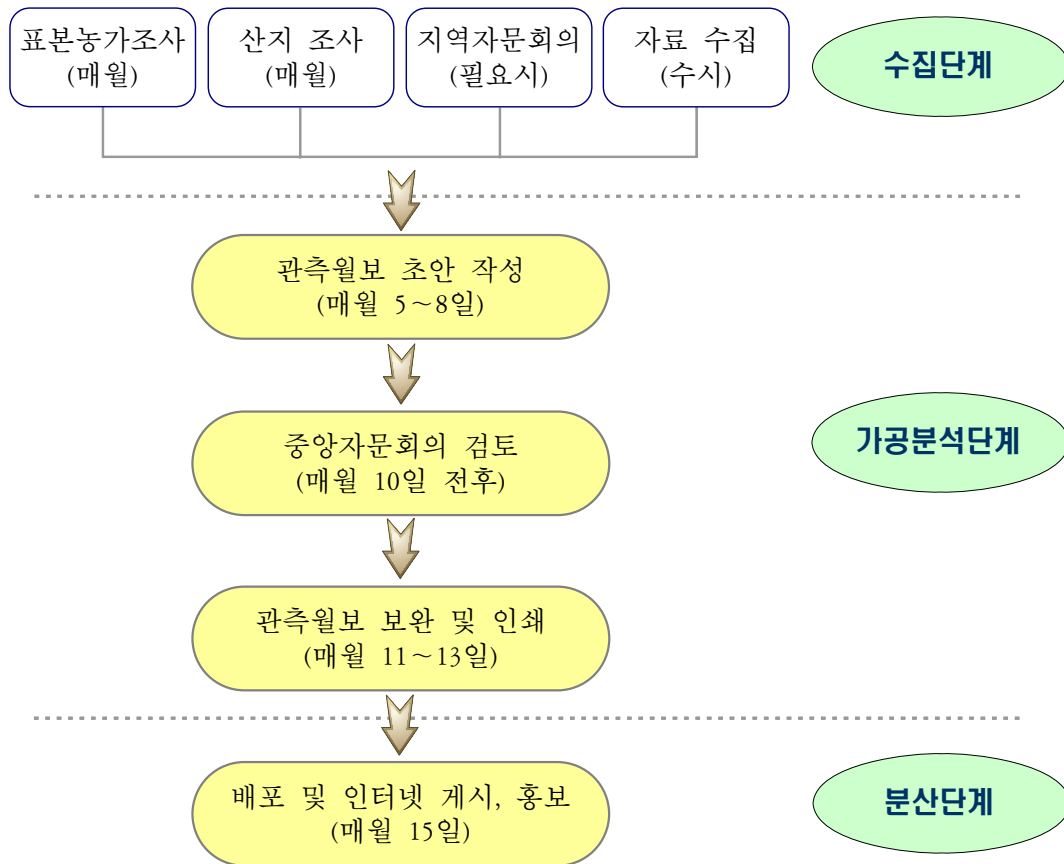
□ 대추·뽕은 감

- 준비작업: 2010년 1~3월
- 월보발간: 2010년 4월부터
- 관측월보 발행일정 및 부수
 - 발행일정: 품목 특성에 따라 4, 8, 9, 10, 11월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4,700부(대추-2,360부, 뽕은감-2,340부)

□ 산채류 및 조경수

- 2010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품목으로 2009년 12월 11일 산림청에서 추진방향을 논의한 결과
 - ▶ 조경수분야
 - 조경수 수종 및 규격이 다양하고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2010년에 관측을 즉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체품목보다는 관측이 가능하고 이용수종이 많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최대한 관측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2010년 1월 28일 2차 추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음
 - ▶ 산채류분야
 - 산채류는 취나물, 고사리, 두릅, 도라지 등 다양한 품목이 있으나 관측이 필요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생산시기가 봄과 가을로 집중되므로 계절별 생산시기, 주산지, 생산규모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취나물, 고사리, 더덕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품목 특성에 따라 월보를 발행하기로 함.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조경수분야와 마찬가지로 2010년 1월 28일 2차 추가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2.3. 임업관측사업 추진 체계



2.4. 자문위원 및 표본농가 정비

□ 밤

- 준비작업: 2010년 1~2월
- 중앙자문위원
 -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14명 내외 위촉하되 지역과 연령, 학식, 현실파악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표본농가 및 지역자문위원
 - 표본농가 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 20~25명을 유지하되 주산지, 연령, 재배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표고버섯

- 준비작업: 2010년 1~2월
- 중앙자문위원
 -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15명 내외 위촉하되 지역과 연령, 학식, 현실파악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표본농가 및 지역자문위원
 - 표본농가 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은 30명 내외를 유지하되 지역, 연령, 재배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대추·뽕은감

- 준비작업: 2010년 1~3월
- 중앙자문위원
 -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각각 10명, 13명 내외로 위촉하되 지역과 연령, 학식, 현실파악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및 보완
- 표본농가 및 지역자문위원
 - 표본농가 300호(대추 150호, 뽕은 감 150호, 예비농가 5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은 24~30명 내외로 하여 총 54명 정도를 유지하되 지역, 연령, 재배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및 보완

3. 관측사업의 내실화 추진계획

□ 관측 품목 확대에 따른 전문가 및 인력 확보

- 관측 품목이 내년부터 조경수, 산채류 등 2품목이 추가·운영될 예정이므로 재배·유통 및 시장 등 각 부문 전문가 및 통신휘·표본 임가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측월보가 작성되어 배부되도록 할 예정이다.
 -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등을 통해 관련 품목 전문가를 발굴하고 산림조합,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통해 지역 전문가 및 표본농가 등의 현장정보제공 전문 인력을 구축할 예정이다.

□ 품목별 생산·유통 및 시장 구조 반영 강화

- 생산·유통 및 시장 구조에 있어 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관측 정보에 반영함으로써 제공되는 정보의 현실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표고: 톱밥표고 시장 정보 강화
 - 대추: 생대추 직거래 가격정보 제공
 - 뽕은 감: 연시·홍시용과 꾀감용 감을 구분하여 정보제공, 생감 공판 경매가격 자료 제공 강화. 수출 증가에 따른 수출정보 제공 강화

□ 표본에 대한 질적 수준 개선 및 관리 철저

- 대추, 뽕은 감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품목이 분리되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품목별로 표본 농가를 확충한 바 있으나 소규모 농가가 포함되어 있는 등 질적인 수준에 있어 다소 한계를 보임.
 - 산림조합, 농림기술센터, 지자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문기술인, 특화전문지도원 등의 추천·협조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 농가를 구축하고자 함.
- 또한 표본 임가에 관한 정보확보는 시·군 지자체 및 지역 농림기술센터 등의 협조로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출되는 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측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관측 외 이슈 정보제공 기능 강화

- 현재 관측 외 정보는 주로 월보 내 단신을 통해 기상, 지역축제, 재배기술 등에 관한 정보가 주로 제공되었으나 정보의 신속성 혹은 최신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했던 측면이 있음.
 - 이에 신규·변경 정부정책, 국내외 최신 이슈, 천재지변으로 인한 속보 등 신속성을 요하는 정보를 인터넷 웹기반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정보전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차기년도 임업관측 예상품목 발굴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관측품목들 이외에 생산자 수와 생산액이 많으나 가격 및 수급이 불안정하고 FTA, DD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임가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품목들을 차기년도 임업관측 예상품목으로 발굴하여 제공하고자 함.
 - 수급분석, 현장조사 및 산림청, 학계, 연구계,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포괄하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제 4 장

임산물 수급동향과 전망: 밤, 표고버섯

1. 밤

1.1. 국제 여건 변화

1.1.1. 세계 밤 생산 및 한·중·일 교역 동향

- 2007년 세계의 밤 생산량은 122만 3천 톤으로 최근 5년간(2003~2007) 매년 2.5%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터키, 이탈리아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연평균 2.5~7.8%의 비율로 증가한 반면, 기타 국가의 생산량은 연평균 7.5%의 비율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량이 가장 많은 중국은 같은 기간 동안 세계 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에서 76%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정체상태를 보이던 터키의 비중은 4.3%에서 5.2%로 증가하였다.
 - 터키는 2003년 48천 톤에서 정체 후 생산량이 2007년 63천 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 중국과 한국은 생산이 많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주요 교역대상국이기도 하며 주 소비국가인 일본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다. 터키, 이탈리아 등에서 생산된 밤은 주로 유럽과 북미지역을 대상으로 교역이 이루어진다.

표 4-1. 국가별 밤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증감률 (07/03)
세 계	1,112	1,252	1,344	1,171	1,223	2.5
한 국	60	72	76	72	70	4.2
중 국	797	923	1,032	850	925	4.0
터 키	48	48	50	54	63	7.8
이탈리아	50	50	52	53	55	2.5
기 타	157	159	134	142	110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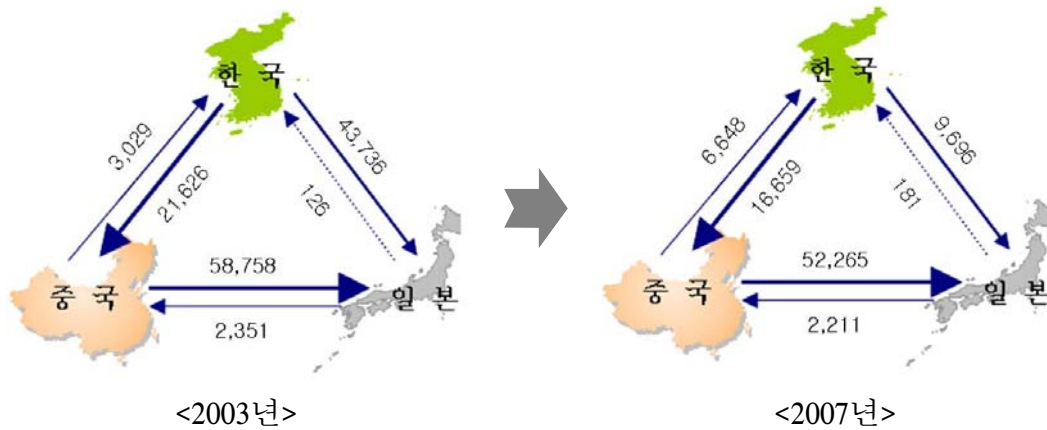
자료: FAO(www.fao.org).

- 주 교역대상국인 한·중·일 밤 교역구조의 변화를 보면, 2003년에는 일본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이 수출을 하는 구조를 보였으나 2007년에는 한국과 중국의 대일본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에는 한국과 중국이 일본시장에 대해 44백만 달러와 59백만 달러를 각각 수출하였으나, 2007년에는 한국과 중국이 일본시장에 대해 9.6백만 달러와 52백만 달러를 각각 수출하여 2003년 대비 한국의 대일 수출은 무려 87.8%, 중국의 대일 수출은 13.5% 감소하였다.
- 한국과 중국의 밤 교역은 2003년에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였으나 2007년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수출비중이 감소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상호 수출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22백만 달러, 중국의 대한 수출액은 3백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7백만 달러, 중국의 대한 수출액은 6.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2007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2003년 대비 23% 감소하였으나, 중국의 대한 수출은 2003년 대비 119% 증가 하였다.
- 한·중·일 교역구조의 주된 변화원인은 일본의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면서 수입이 감소하였고,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간밤 수출이 국내 인건비의 상승으로 둔화되면서 생밤을 중국으로 수출한 뒤 간밤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는 값싼 생밤, 냉동밤, 조제밤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값싼 인건비를 이용하는 중국 의존적 수출구조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지속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또한 최근 중국제품의 식품안전성문제로 일본의 규제가 커질 것으로 보여 현재의 교역구조는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1. 한·중·일의 밤 교역구조 변화

단위: 천 달러



1.1.2. 중국

- 중국의 밤 생산량은 2007년 92만 5천 톤으로 2005년 가장 많은 103만 2천 톤을 보인 후 2006년에 감소 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생산지는 산둥, 호북, 하남, 하북 등이다.
 - 수출을 위해 한국산 밤 품종을 식재한 지역도 있는데 요령성 단둥시, 산둥성 일조시, 강소성 북부 서주시, 하남시 신양, 광둥, 광서 등이 대표적이며 총 2만 ha 이상 식재를 하여 연간 1만 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중국에서 생산된 밤의 대부분은 <표 30-2> 에서 보듯이 국내에서 소비되었으며 수입과 수출은 생산량의 약 1.2%, 5%에 불과하다.
- 중국의 밤 소비량은 2003년 77만 5천 톤에서 2007년 89만 톤으로 연평균 3.7%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는 대부분 군밤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며, 밤을 이용한 가공제품은 통조림을 비롯해 주스, 과자, 술, 잼 등 다양하다.

표 4-2. 중국의 밤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증감률 (07/03)
생 산	797	923	1,032	850	925	4.0
수 입	10	14	14	13	11	2.5
수 출	32	38	37	43	46	10.9
소 비	775	899	1,009	820	890	3.7

주: 수출입량은 생밤을 의미함.

자료: 中國國家林業局, 『中國林業發展報告』, 2006. FAO(www.fao.org),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밤 수출은 주로 생밤위주로 이루어진다. 2007년 생밤수출은 4만 5,513톤으로, 2003년부터 연평균 약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등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다.
- 가장 높은 수출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일본으로 2003년 전체의 약 56%를 수출하였으나 2007년 들어 그 비중이 24%로 줄어들었고 연평균 7.8%씩 감소하였다. 반면 한국은 2003년 전체 수출량의 4.7%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5%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중국의 생밤 수출 동향

단위: 톤,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0월)	연평균증감률 (07/03)
전 체	32,369	37,675	37,091	43,379	45,513	26,481	10.2
한 국	1,518	1,991	1,639	2,530	2,297	1,904	12.8
일 본	18,243	19,317	14,316	14,478	11,084	5,009	-9.8
대 만	6,184	6,951	8,115	7,377	6,176	3,856	-0.0
태 국	1,136	1,148	1,016	1,073	1,631	1,904	10.9
아랍에미리트	255	546	1,480	3,083	2,285	758	199.0
기 타	5,033	7,722	10,524	14,839	22,040	13,050	84.5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4-4. 중국의 생밤 수입 동향

단위: 톤, %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0월)	연평균증감률 (07/03)
전 체	9,902	13,529	13,763	13,358	11,151	10,682	3.2
한 국	8,757	12,857	13,163	12,676	9,481	8,333	2.1
일 본	1,017	487	354	658	865	1,724	-3.7
기 타	128	185	246	24	805	625	132.2
한국비중	88.4	95.0	95.6	94.9	85.0	78.0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중국의 밤 수입은 2007년 약 1만 1,151톤으로 2003년에 비해 연평균 3.2% 비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으로부터는 전체의 약 85%에 달하는 9,481톤을 수입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3.7%의 감소율을 보였다.
 - 한국으로부터의 생밤수입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간밤으로 가공,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이다.

1.1.3. 일본

- 일본의 밤 생산량은 2007년 1만 2,938톤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7%의 비율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바라키, 구마모토, 에히메 등이 전체생산량의 약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밤 노목원의 폐원 등으로 결과수 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¹.
- 주 소비국가인 일본이 생밤의 일부를 수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 수출량은 약 799톤으로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2008년(1~10월) 수출량은 1,712톤으로, 중국으로 1,706톤, 한국으로 6톤이 수출된 바 있다.
- 수입량은 생산량보다 많아 2007년 2만 281톤으로 집계되었는데 주로 생밤²위주로

¹ 농수산물유통공사(2007)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 결과수 면적은 25,900ha였으나 2005년 23,800ha, 2006년 23,300ha로 매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되었다. 수입량은 일본내 소비수요 감소와 함께 연평균 5.8%의 비율로 감소하였는데 생밤, 일시저장밤 등이 감소한 반면 밤 통조림은 연평균 10.4%의 비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에는 간밤을 수입하여 일본내에서 제과, 제빵용 감로자인 밤 통조림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근래에는 기술의 발달로 해외에서 만들어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수출국에서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일본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표 4-5. 일본의 밤 생산 및 수출입 동향

단위: 톤,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증감률 (07/03)	
국내생산량(A)	16,858	13,908	12,370	14,048	12,938	-5.8	
수입 (B)	생밤	25,233	25,207	21,552	22,054	17,397	-7.8
	일시저장	1,399	1,551	713	657	832	-9.5
	통조림	1,450	2,032	2,199	2,148	2,052	10.4
	소 계	28,082	28,790	24,464	24,859	20,281	-6.9
총 공급량(A+B)	44,940	42,698	36,834	38,907	33,219	-6.5	
생밤수출	914	582	366	595	799	-3.2	

자료: 일본 임야청. 특용임산물 생산 동향. 각 연도. 한국무역협회(www.kati.net).

-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별 수입액 동향을 보면 생밤의 수입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연평균 수입액 감소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 일본 생밤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중국산 생밤의 비중은 2007년 들어 58.2%로 하락하였고, 한국산 생밤의 비중은 2003년 39.8%에서 2007년 41.5%로 증가하였다.
- 일시저장밤도 수입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으로부터의 연평균 수입액은 무려 24.4%의 비율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일시저장밤의 수입액은 연평균 1.2%의 비율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중국산위주로 일본시장이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² 일본에서는 2000년부터 한국에서는 구분되는 생밤과 간밤이 모두 생밤으로 합쳐져 분류되기 시작했다.

표 4-6. 밤 제품별 국가별 수입액 동향

단위: 천 엔, %

	제품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0월)	연평균증감률 (07/03)
한국	생밤	4,762 (39.8)	3,286 (38.5)	3,295 (43.0)	3,029 (37.9)	3,016 (41.5)	1,713 (54.1)	-9.2
	일시저장	1,111 (76.0)	294 (35.3)	35 (8.6)	31 (8.5)	27 (6.9)	35 (23.0)	-24.4
	밤통조림	15 (1.8)	3 (0.3)	7 (0.6)	65 (5.7)	80 (7.2)	70 (9.9)	108.3
중국	생밤	7,170 (59.9)	5,205 (61.0)	4,341 (56.6)	4,953 (61.9)	4,233 (58.2)	1,435 (45.3)	-10.2
	일시저장	350 (24.0)	540 (64.7)	374 (91.4)	328 (91.5)	367 (93.1)	152 (76.3)	1.2
	밤통조림	575 (69.9)	727 (70.5)	799 (71.7)	747 (64.8)	652 (58.6)	391 (55.2)	3.3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제품의 전체 수입액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

- 밤 통조림의 경우 매년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산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최근 한국산의 수출액이 증가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 2003년 한국산 밤 통조림의 일본 시장점유율은 1.8%에 불과했으나 2007년 7.2%로 높아졌으며 연평균 108.3%의 비율로 한국산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다.
 - 반면 중국산 밤 통조림은 일본 시장점유율이 2003년 69.9%에서 2007년 58.6%로 낮아졌으나, 금액은 연평균 3.3%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 전체적으로 일본의 밤 시장규모는 자국 경기의 침체와 함께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줄어들었으며 중국에의 의존도가 높지만 제품의 안정성과 질을 높인다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2. 국내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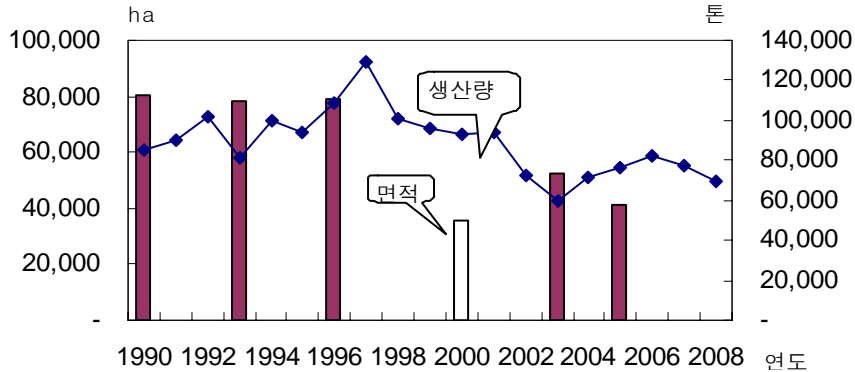
1.2.1. 생산 및 소비

- 국내 밤 생산은 199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생산량은 경남, 전남 등 남부지방 주산지의 극심한 가뭄으로 평년³에 비해 약 13.5% 감소한

7만여 톤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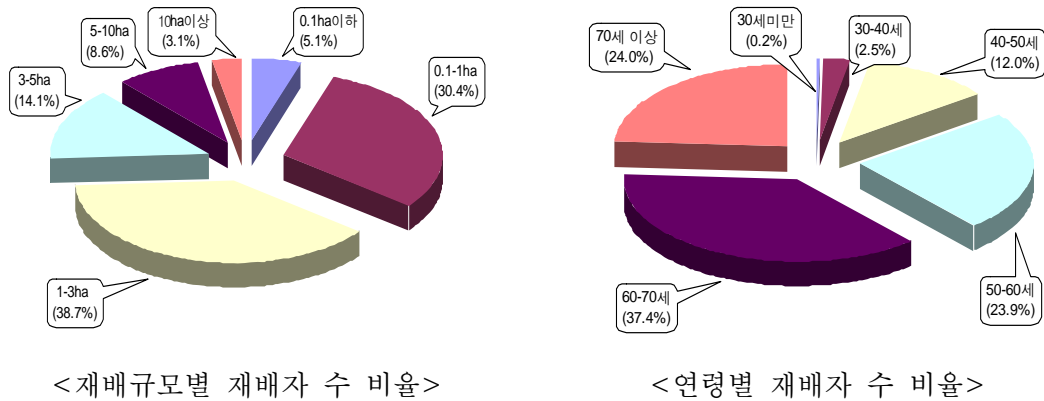
- 2002년과 2003년 태풍피해로 생산량이 급감한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부지역⁴을 제외한 남부지역의 밤나무 고령화와 관리부실, 타 작목으로의 전환, 신규재배면적의 감소⁵ 등이 감소의 주원인이다.

그림 4-2. 밤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⁶



주: 2008년 생산량은 추정치임.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1990~1996), 임업총조사(2000, 2005), 임업관측월보(농경연).

그림 4-3. 재배규모 및 연령별 재배자 수 비율



- 태풍의 피해로 인해 생산량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2002년과 2003년을 제외한 최근 4개년 간의 평균을 의미한다.
- 2001~2007년까지 조성된 신규면적의 약 83%가 중부지방에서 조성되었다.
- 산림청은 국내 밤 가격안정을 위해 신규조성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중단하였고 기존 밤나무림을 타 작목으로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 장우환 외(2003)에 의하면 2000년도 면적이 크게 감소한 것은 임업총조사 시 일정면적(1,700평)이상의 재배자만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 밤을 재배하는 임가 수는 5만 3천호('96)에서 2만 9천호('03), 그리고 2만 1천호('05)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재배면적은 4만 1,045ha에 달하고 있다. 재배규모별로는 5ha미만의 재배자 수가 88.3%로 소유규모가 매우 영세함을 알 수 있다.
- 또한 전체 재배자의 약 61%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어 연령구조가 매우 고령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밤 소비는 수출용이 25~30% 정도 차지하며, 국내 소비는 명절이나 혼인, 제사 등 각종 제수용품이 약 18~20%, 식자재용이 15%, 과자, 통조림, 이유식 등 가공용이 12~15%, 군밤용이 3~5%, 기타 12~15% 정도인 것으로 추정 된다⁷.
- 밤의 일인당 소비추세는 1990년 1.1kg이었던 소비량이 1997년 최고인 2.2kg을 기록한 후 점차 줄어들어 2003년에는 1.0kg까지 감소하였다. 그 후 다시 증가하여 2007년에는 1.6kg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1.2.2. 유통 및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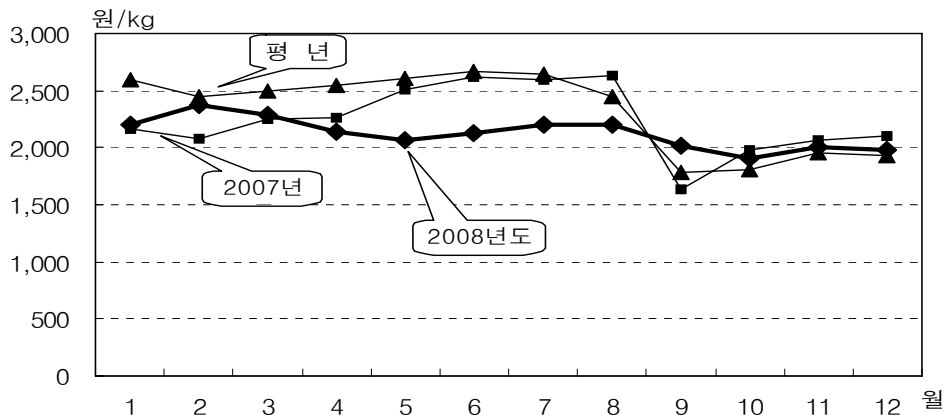
- 밤 유통은 기존의 농협(67%) 및 산지수집상(26%)⁸ 중심에서 탈피, 농협 58%, 산지수집상 24%, 소비자와의 직거래 8%, 산림조합 4%, 기타(생산자 조합, 대형마트, 수출상 등) 6%로, 농협비중은 줄고 소비자와의 직거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친환경임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직거래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008년산 밤 가격은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10월 이후 월평균가격은 2007년산 보다 낮으나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2009년 상반기 가격은 밤 소비가 많은 계절적 특징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경기침체로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년 가격수준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7 이상민 · 장철수. 2006. 「밤의 수급 전망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528. p.11.

8 장우환외(2003) 「밤나무 재배실태와 정책방향 연구」

9 2008 임업관측(밤) 12월호(농경연)

그림 4-4. 밤 생산지 월별 상품 가격 변화 동향



1.2.3. 수출입

- 우리나라 밤의 수출입 추이를 보면 생밤을 기준으로 2007년에 1만 4,103톤을 수출하였고 수출액은 28백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3년에 비해 각각 연평균 5.1%와 14.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 주원인은 부가가치가 높은 간밤의 대일 직접 수출이 감소하면서 중국으로의 생밤 수출이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중국의 대일 수출이 다소 감소를 보이면서 생밤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2008년 11월 현재 수출량은 1만 3,286톤, 수출액은 26백만 달러로 수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 4-7. 밤의 수출입 추이

단위: 톤,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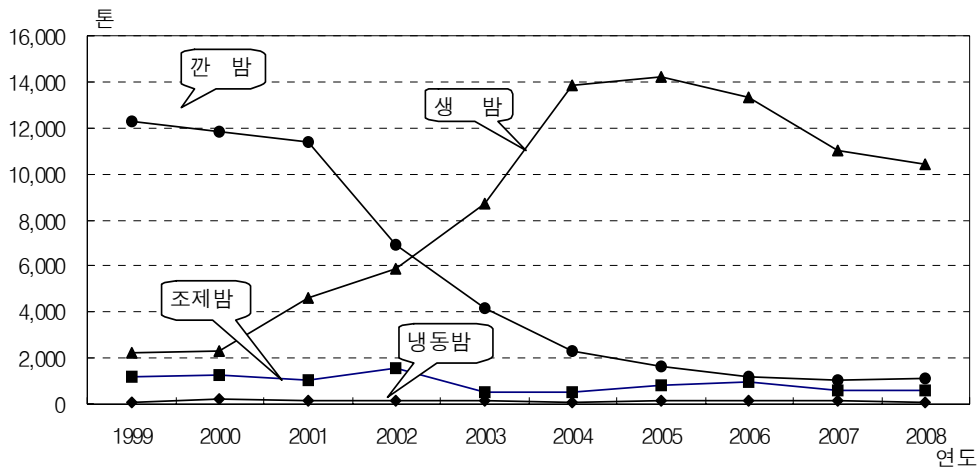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1월)	연평균증감률 (07/03)
수출	수출량	17,727	19,146	18,652	16,991	14,103	13,334	-5.1
	수출액	66,063	41,669	38,121	33,342	28,193	25,626	-14.3
수입	수입량	4,033	6,578	6,499	10,235	10,227	7,977	38.4
	수입액	3,380	7,504	9,951	19,461	21,299	15,947	132.5

주: 수출입량은 생밤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 전환계수는 생밤 1.0, 간밤 2.0, 가공밤 1.1, 냉동밤 1.4이며, 2008년은 11월 25일 까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제품별 수출입 추이를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출비중이 깐밤에서 생밤으로 바뀌고 있다. 깐밤의 수출이 2001년을 고비로 급격히 감소하여 2004년 이후에는 2,000톤을 하회하고 있는 반면 생밤의 수출은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 이후에는 1만 톤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 주원인은 국내 인건비의 증가로 깐밤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대신, 생밤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가공한 후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회수출이 증가하는 등 수출경로의 변경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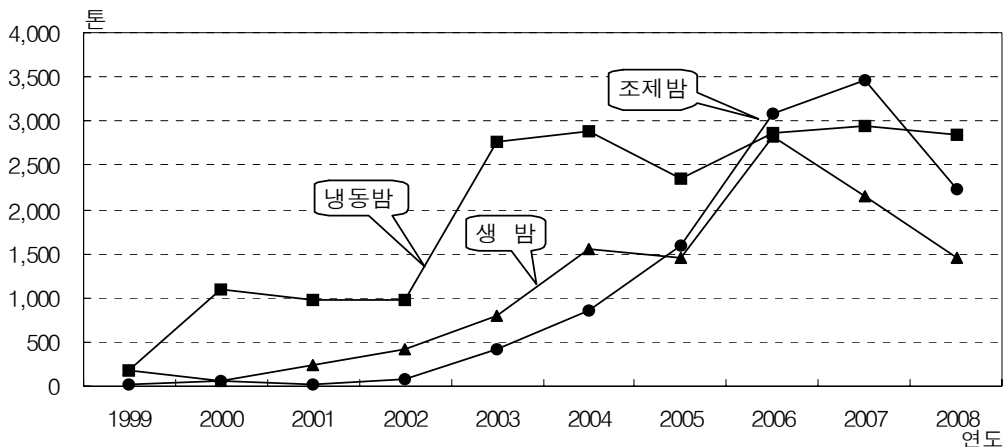
그림 4-5. 밤 제품별 수출량



- 국가별 밤 수출은 생밤은 중국, 일본, 냉동밤은 일본 등으로 편재되어 있는 반면, 조제밤은 일본, 중국, 미국, 대만 등으로 비교적 다변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제밤은 가공밤으로서 밤 생산이전의 수출비수기(1~8월) 동안 밤 수출효자 품목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수출량은 일본 427톤, 중국 14톤, 미국 130톤, 대만 18톤으로 나타났다.
- 수입량은 2007년에 1만 227톤, 수입액은 21백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 대비 각각 연평균 38.4%와 132.5% 증가하였다.
 - 중국산이 당도가 높고, 군밤형태로 많이 소비되는 생밤의 수요가 늘어났으며, 소비가 간편한 조제밤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008년 11월 현재 수입량은 7,800톤, 수입액은 16백만 달러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경기의 침체와 함께 수입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수입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제품별 수입추이를 보면, 생밤에 비해 관세가 낮은 제과용 및 요식용 재료로 이용되는 냉동밤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국내산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수입량이 주춤한 상태인 반면 생밤과 조제밤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조제밤의 경우 최근 대기업의 완제품 수입에 힘입어 2006년 3,091톤, 2007년 3,453톤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 11월까지 2,232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생밤은 관세할당제도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데, 2006년 수입량이 2,830톤으로 시장접근물량(MMA) 2,170톤을 초과했으나 2007년 들어 수입량은 2,159톤, 2008년 11월 현재 1,445톤으로 MMA 물량보다 적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밤 제품별 수입 동향



1.3. 수급 전망¹⁰

- 2002년과 2003년의 연속된 태풍 피해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 밤 생산량은, 2008년에 남부주산지의 극심한 가뭄피해로 약 7만 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의 감소와 가뭄피해로 인해 당분간 생산량은 감소하여 2009년 약 6만 8천 톤가량을 생산하고 2014년에도 약 6만 7천 톤가량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역의 재배면적은 감소하나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2000년 초에 신규 식재된 재배면적의 생산 증가로 2019년에는 약 7만 2천 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¹⁰ 전망은 이상민·장철수(2006)의 밤 수급전망모형을 활용하여 예측한 결과이다.

- 반면, 최근 들어 생밤과 조제밤 위주로 대폭 늘어났던 밤 수입은 국내 경기침체로 2009년에는 약 7천 톤 정도로 감소하지만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2014년 수입량은 8,500톤, 2019년 수입량은 약 9,80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은 일본이 식품안정성을 위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대일본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안정성이 높은 한국산 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수출국의 다변화와 수출제품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2009년에는 1만 4천 톤, 2014년에 약 1만 5천 톤, 2019년에는 1만 8천 톤 정도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생밤에 대한 국내 소비량은, 경기침체로 2009년에는 약 6만 톤으로 감소하다가 이후는 경기회복과 함께 다소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6만 5천 톤으로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약 1.27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8. 밤 수급 전망(생밤 환산 기준)

단위: 톤

	2007	2008	전망		
			2009	2014	2019
공급	87,751	78,784	75,002	75,548	82,219
국내생산	77,524	70,000	67,769	66,988	72,346
수입	10,227	8,784	7,233	8,560	9,873
수요	87,751	78,784	75,002	75,548	82,219
국내소비	73,648	65,332	60,622	60,916	64,639
수출	14,103	13,452	14,379	14,632	17,580
1인당 소비량(kg)	1.62	1.40	1.22	1.20	1.27

주: 2008년도는 잠정 추정치임.

2. 표고버섯

2.1. 국제 여건 변화

2.1.1. 세계 생산 및 한·중·일 교역 동향

- 표고버섯은 주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며, 주요 생산국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이다. 세계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없으나,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세계 표고 생산량은 2006년 약 350만 톤(생표고 환산기준)으로, 이중 중국이 329만 톤(94.3%), 일본이 9만 4천 톤(2.7%), 한국이 3만 8천 톤(1.1%)을 차지하였다.

표 4-9. 세계 표고버섯 생산량(추정치, 생표고 환산기준)

단위: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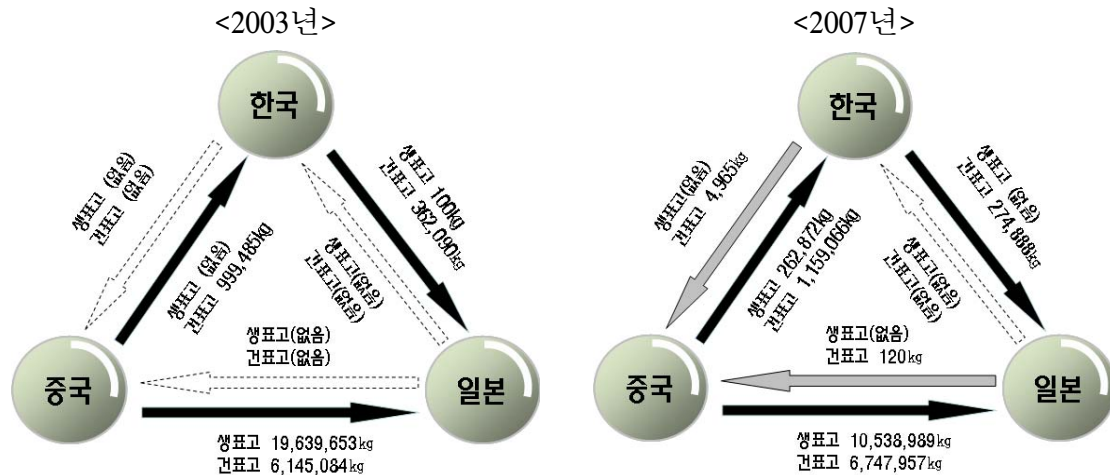
구분	1994년		1997년		2002년		2006년	
	생산량	%	생산량	%	생산량	%	생산량	%
중국	626,000	73.6	1,125,000	85.1	2,214,444	91.7	3,293,235	94.3
일본	157,400	18.5	132,600	10.0	96,964	4.0	94,574	2.7
한국	22,000	2.6	17,000	1.3	37,854	1.6	38,534	1.1
대만	28,000	3.3	27,000	2.1	29,240	1.2	30,000	0.9
기타	17,000	2.0	20,000	1.5	36,550	1.5	37,000	1.0
계	850,400	100.0	1,321,000	100.0	2,415,052	100	3,493,343	100

주: 세계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없음. 1994년과 1997년 자료는 Mushroom Grower's Handbook을 참조하였으며, 2002년과 2006년 자료는 중국, 일본, 한국은 각 국가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으나 대만과 기타는 추정자료를 사용함.

- 1990년 이전에는 일본과 한국이 표고버섯의 주요 수출국이었으나 중국이 농업정책을 전환하고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생산량과 수출량은 급속하게 늘었다.
 -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표고버섯 수출은 크게 위축되었으며, 현재 중국은 세계 표고버섯 수출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 2003년과 2007년의 한·중·일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교역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중국산 표고버섯의 잔류농약 문제 등 식품 안전성의 문제로 중국의 대

일(對日) 교역량은 감소하고 대한(對韓) 교역량은 소폭 증가하는 등 교역량의 변화가 있었다.

그림 4-7. 한·중·일 표고버섯(건표고 및 생표고) 교역량



주: 한국 ↔ 중국, 한국 ↔ 일본의 교역량은 한국기준이며, 중국 ↔ 일본의 교역량은 중국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중국의 생표고 일본 수출량은 2003년 1만 9천 톤에서 2007년 1만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잔류농약 문제의 발생으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특히 2006년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¹¹ 도입이후 일부 중국산 생표고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검사명령이 내려지는 등 대일 수출이 크게 위축되었다.
-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2003년에는 없었으나 2007년에는 1천 톤이 있었다. 중국의 생표고 주요 수출국은 일본(50.9%), 미국(15.0%) 등의 순이었으며, 한국(1.5%)의 점유율은 높지 않았다.
- 중국의 건표고 일본 수출량은 2003년 6,145톤에서 2007년 6,748톤으로 소폭 증가

¹¹ 포지티브 리스트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수입 허용 농약 리스트에 기준치를 명시하고 그 밖에 리스트에 없는 농약은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로, 일본은 2006년 5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오고 있다.

하였다.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2004년 1천 톤에서 2007년 1천 159톤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 중국의 건표고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33.9%), 홍콩(24.7%), 한국(7.6%), 미국(5.4%) 등의 순이다.

- 한국 표고의 중국 수출량은 2007년에 일부(건표고, 4,965kg) 있었으며, 일본으로의 수출량은 2003년 362톤(건표고)에서 2007년 275톤으로 감소하였다(생표고의 경우 매우 미미함).
- 일본 표고의 중국 수출량은 매우 적었고(건표고, 120kg),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없었다. 일본은 주요 수입국으로, 건표고 수입 비중(2006년)이 국내 수요량의 67.7%에 달했으나 생표고는 19.8%로 감소세를 보였다.¹²
- 국제 시장에서 중국산 표고버섯의 가격우위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 소비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 수입국에서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요구 강화 등으로 중국의 표고버섯 수출은 약화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2.1.2. 중국

- 중국의 표고버섯 생산량은 2004년 약 217만 톤(생표고 환산기준)에서 2006년 약 329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주산지는 복건(福建)성, 하남(河南)성, 절강(浙江)성으로 총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였다.
- 중국(북경)의 월별 생표고 평균 가격은 kg당 최저 3.3元(위안)에서 최고 6.7元(위안)이었으며, 2007년과 2008년의 평균 가격은 kg당 5.5元(위안)이었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상반기에는 가격이 낮았으나 하반기에는 높게 형성되었다.

¹² 농수산물유통공사 오사카aT센터. 「2008년 일본의 표고버섯 시장동향」.

표 4-10. 중국의 성(省)별 표고버섯 생산 동향

단위: 톤, %

구분	합계	복건	하남	절강	호북	산둥	섬서	기타	
2001	생산량	2,072,194	600,000	259,169	375,540	170,000	100,000	144,500	422,985
	(비율)	(100)	(29.0)	(12.5)	(18.1)	(8.2)	(4.8)	(7.0)	(20.4)
2002	생산량	2,214,444	620,000	303,893	378,000	187,000	133,200	101,150	491,201
	(비율)	(100)	(28.0)	(13.7)	(17.1)	(8.4)	(6.0)	(4.6)	(22.2)
2004	생산량	297,798	-	94,378	49,873	25,529	30,245	11,853	85,572
	(비율)	(100)	-	(31.7)	(16.7)	(8.6)	(10.2)	(4.0)	(28.7)
2005	생산량	376,330	78,378	123,469	54,801	24,620	-	10,250	84,812
	(비율)	(100)	(20.8)	(32.8)	(14.6)	(6.5)	-	(2.7)	(22.5)
2006	생산량	450,511	79,145	136,178	57,566	29,928	27,994	9,972	109,221
	(비율)	(100)	(17.6)	(30.2)	(12.8)	(6.6)	(6.2)	(2.2)	(24.2)

자료1: 『中國農產品加工業年監』. 2002~2003(생표고 기준).

자료2: 『中國農業統計資料』. 2004~2006(건표고 기준).

표 4-11. 중국(북경)의 생표고 가격

단위: 元/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년	5.6	5.3	5.2	5.2	6.2	6.4	4.7	6.2	6.3	6.4	4.1	4.2
2008년	5.0	5.0	3.3	4.7	4.7	-	6.6	6.4	6.7	5.4	5.7	6.5

자료: <http://www.mushroommarket.net>.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동부 연안지역 수출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표고버섯의 수출은 현 수준에서 지속될 것이며 국내 소비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표고버섯의 생산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1.3. 일본

- 일본의 생표고 생산량은 2006년 6만 6,349톤으로 2002년 이후 연평균 0.7%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내 생산의 안정세는, 2000년 JAS법 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강화로 국내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였고 중국산 수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건표고 생산량은 2006년 3,861톤으로 생표고의 소폭 증가와는 달리 2002년 이후

연평균 3.5%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가정용, 선물용 등 가정내 건포고의 소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4-12. 일본의 표고버섯 수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감률
생 표 고	생 산	64,442	65,363	66,204	65,186	66,349	0.7
	수 입	28,148	24,896	27,205	22,526	16,394	-12.6
	소 비	92,590	90,259	93,409	87,712	82,743	-2.8
건 포 고	생 산	4,449	4,108	4,088	4,091	3,861	-3.5
	수 입	8,633	9,137	8,844	8,375	7,949	-2.0
	수 출	118	79	73	85	76	-10.4
	소 비	12,965	13,166	12,859	12,381	11,734	-2.5

자료: 日本 林野廳.

- 건포고의 주생산지는 오이타(34.9%), 미야자키(15.6%) 등이다. 일본 내에서 향신¹³(47.0%)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고¹⁴(34.0%)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 생표고의 주생산지는 도쿠시마(9.1%), 군마(7.9%), 도치기(6.3%) 등의 순이며, 일본 내에서는 균상재배(72.8%)를 통한 생산이 원목재배(27.2%)보다 많으며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 일본 내 표고버섯 재배임가 수는 2006년 38,427가구¹⁵이며, 이중 원목재배 임가 수는 건포고 17,851가구, 생표고 16,990가구로 총 34,841가구이다. 균상재배(생표고) 가구 수는 3,586가구이다.

¹³ 향신은 갓의 두께가 얇고 줄기도 가는 편이며, 형태는 갓이 활짝 피어 크기가 다양하다.

¹⁴ 동고는 추운 겨울에 서서히 기른 것으로 갓이 두껍고 줄기부분이 굵은 것이 특징이다.

¹⁵ 농수산물유통공사 오사카aT센터. 「2008년 일본의 표고버섯 시장동향」.

표 4-13. 일본의 표고버섯(품목별) 생산량과 순위

단위: 톤

주산지 (생산량 순위)	건표고				주산지 (생산량 순위)	생표고		
	동고 (冬菇)	향신 (香信)	산성 (山成)	합계		원목재배	균상재배	합계
오이타	543.2	727.9	76.9	1,348.0	도쿠시마	106.9	5,908.5	6,015.4
미야자키	223.1	233.1	146.4	602.6	군마	2,212.7	3,018.9	5,231.6
이와테	82.5	98.5	70.0	251.0	도치기	1,511.1	2,679.0	4,190.1
에히메	31.4	67.4	128.7	227.5	이와테	514.5	3,551.0	4,065.5
구마모토	67.4	128.9	15.7	212.0	홋카이도	572.7	3,425.3	3,998.0
시즈오카	101.4	72.3	27.3	201.0	후쿠시마	784.7	1,999.1	2,783.8
합계	1,312.7	1,816.2	732.0	3,860.9	합계	18,025.9	48,322.6	66,348.5

주: 산성(山成)은 무선별 건표고를 말함.
 자료: 農林水産省 林野廳.

- 일본의 표고버섯 소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세대당 생표고 구입량은 2001년 이후 연평균 3.4%, 건표고 구입량은 연평균 1.5% 감소하였다. 지출액에 있어서도 생표고의 경우 연평균 1.9%, 건표고의 경우 연평균 4.0% 감소하였다.
- 일본 내 표고버섯의 소비가 감소하는 주요 이유는 팥이버섯, 부나시메지, 만가닥, 잎새, 새송이 등 저렴한 대체 버섯류의 증대와 함께 표고버섯의 독특한 향, 건표고의 불편한 조리과정 등 젊은 소비층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4-14. 일본의 세대당 표고버섯 구입량 및 지출액

단위: 엔/g,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감률
생표고	수량	2,007	1,761	1,677	1,758	1,688	1,684	-3.4
	금액	2,187	2,085	1,984	2,008	1,918	1,986	-1.9
건표고	수량	120	107	102	99	113	98	-4.0
	금액	647	592	609	582	611	600	-1.5

자료 1: 일본 농림수산성. 「ポケット食品統計」, 2006.
 자료 2: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 최근 도매시장(오사카)의 생표고 평균 가격은 상승하였는데, 이는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자국산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반입 물량 또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4-15. 오사카시 중앙도매시장 생표고 가격 동향

단위: 톤, 백만 엔, 엔/kg

연도	도매수량	금액	단가
2005년	5,201	4,228	813
2006년	4,478	4,160	929
2007년	4,221	4,217	99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오사카aT센터. 「2008년 일본의 표고버섯 시장동향」.

- 건표고의 도매시장(전국 기준) 평균 가격은 kg당 3,609~4,167엔의 비교적 낮은 가격을 보였는데, 이는 1999년과 2002년 잇따른 외국산 표고버섯의 혼입위장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4-16. 건표고 도매시장(전국기준) 가격 동향

단위: 엔/kg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도매단가	3,624	4,167	4,146	3,609	3,719

자료: 일본 농림수산물성 임야청.

- 잔류농약 검출, 만두 사태, 멜라민 사태 등으로, 수입 농림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일본의 경계 수준이 더욱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나빠져, 표고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표고 생산량은 건표고보다는 선호도가 높은 생표고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2. 국내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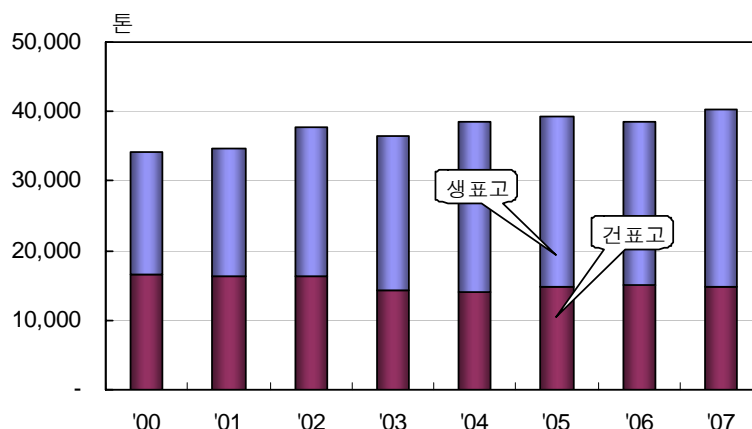
2.2.1. 생산 및 소비

- 표고버섯 생산량은 2007년 약 4만 톤(생표고 환산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8% 증가하였다. 생표고 생산량은 약 2만 5천 톤으로 연평균 4.2% 증가하였으나

건표고 생산량은 약 1만 5천 톤으로 연평균 1.8% 감소하였다.

- 생표고의 경우 최근 원목재배 임가의 지속적인 신규 접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목재배 방식에서 균상재배 방식으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전체적인 생산량은 증가 추세이다.
- 건표고의 경우 원목구입비, 건조비 등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재배임가 감소와 함께 고온·저온 현상 등 재배환경이 좋지 못해 전반적인 생산량은 감소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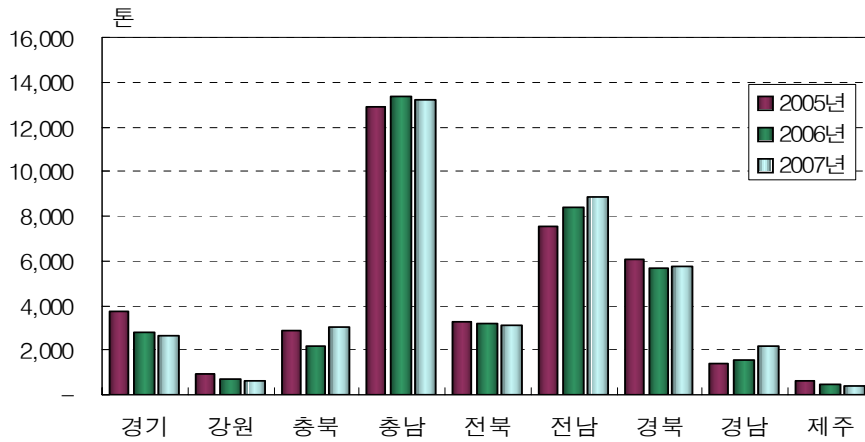
그림 4-8. 표고버섯 생산량 추이



주: 건표고 생산량은 생표고로 환산하였음(환산 비율은 7.31).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각 연도.

- 표고버섯은 전국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충남(32.9%), 전남(22.0%), 경북(14.3%) 등의 생산량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 생표고의 주산지는 부여(15.5%), 청양(5.3%), 공주(4.7%) 등이며, 건표고의 주산지는 장흥(26.4%), 거제(7.6%), 진안(6.4%) 등이다.
- 임업총조사에 따르면, 표고버섯 재배임가 수는 2005년 5,750가구로 2000년 6,887가구보다 감소하였다. 이들의 시설하우스 비율은 65.2%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점차 산지(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그림 4-9. 지역별 표고버섯의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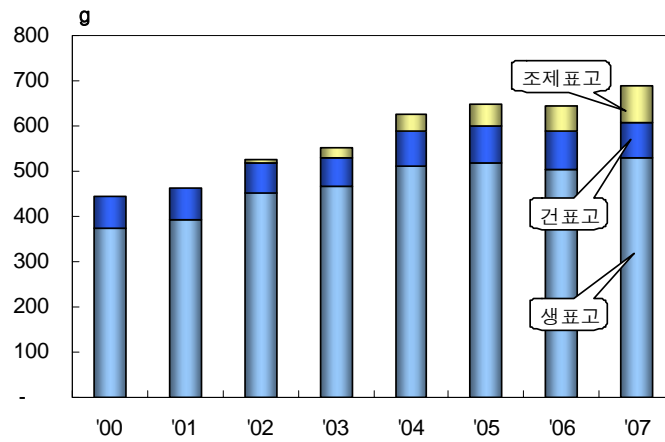


주: 건표고 생산량은 생표고로 환산하였음(환산 비율은 7.31).
 자료: 산림청, 『임산물생산통계』, 각 연도.

- 톱밥배지 재배방식(균상재배 방식의 일종)에 의한 생산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10% 미만이다. 이 재배방식은 거의 모든 활엽수 톱밥을 사용할 수 있고 잔가지 등 폐잔재를 활용할 수 있어 원목재배에 비해 자원이 절약되며 재배 기간도 짧아 자본회수가 용이하다. 이 때문에 한국의 표고버섯 재배방식은 톱밥배지 재배로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¹⁶이 크다.
 - 중국과 대만의 경우 톱밥배지 재배방식에 의한 생산이 90% 이상이며 일본(생표고)도 점차 증가하여 70% 이상이다.
- 표고버섯의 1인당 소비량(고유무게 기준)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7년 표고버섯의 1인당 소비량은 생표고 529g, 건표고 77g, 조제표고 84g으로 나타났으며, 건표고 소비량은 동일하게 유지된 반면, 생표고와 조제표고의 소비량이 증가하였다.

¹⁶ 표본 임가 조사결과(2008.3.), 톱밥배지 재배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질문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27.3%, 부정적인 의견이 25.1%,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47.6%로 나타나 아직까지 절반에 가까운 농가들은 톱밥배지 재배방식에 대해 불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입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향후 “1~2년 이내” 66.7%, “3~5년 이내” 31.2%, “6~10년 이내” 2.1%인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임가들은 조기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0. 표고버섯의 1인당 소비량 추이



주: 건표고, 생표고, 조제표고의 고유무게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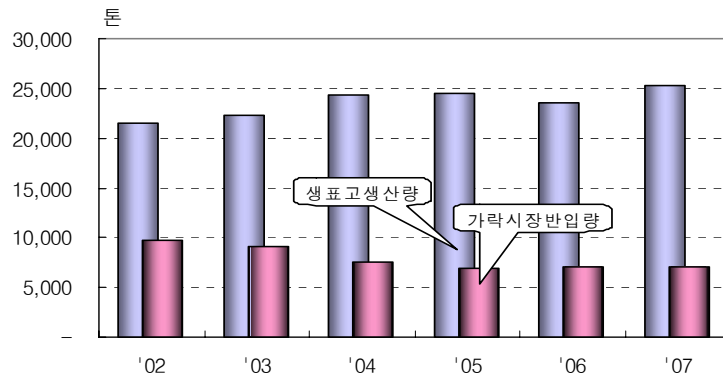
- 표고버섯은 건강식품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경기위축과 함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이러한 표고 소비의 증가세는 다소 약화¹⁷될 것으로 예상된다.

2.2.2. 유통 및 가격

- 생표고는 단위농협(60%)과 작목반(40%)을 통해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데, 전체 물량의 약 25~30%는 가락시장으로 출하되며 나머지 대부분은 수도권 유사도매 시장과 지방의 도매시장 등으로 출하된다.
- 최근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의 반입 비율은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대형마트, 인터넷 직거래 등 판로가 다양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¹⁷ 도시가구 소비자 조사결과(2008.8.), 향후 “표고버섯 소비를 늘리겠다” 20.6%, “줄이겠다” 1.2%,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 75.3%, “기타” 2.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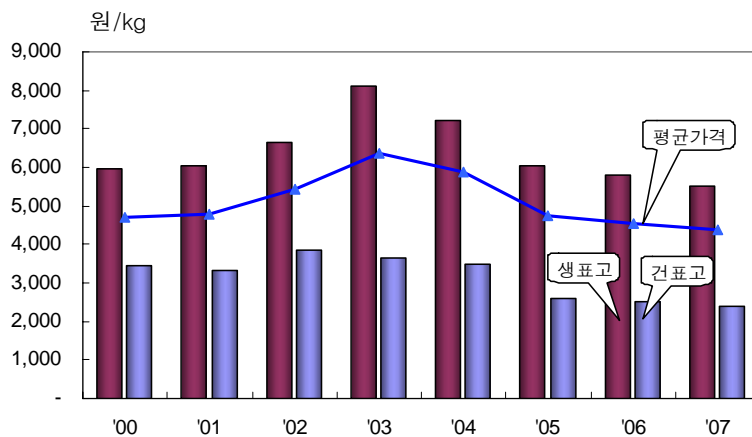
그림 4-11. 생표고 생산량과 가락시장 반입 동향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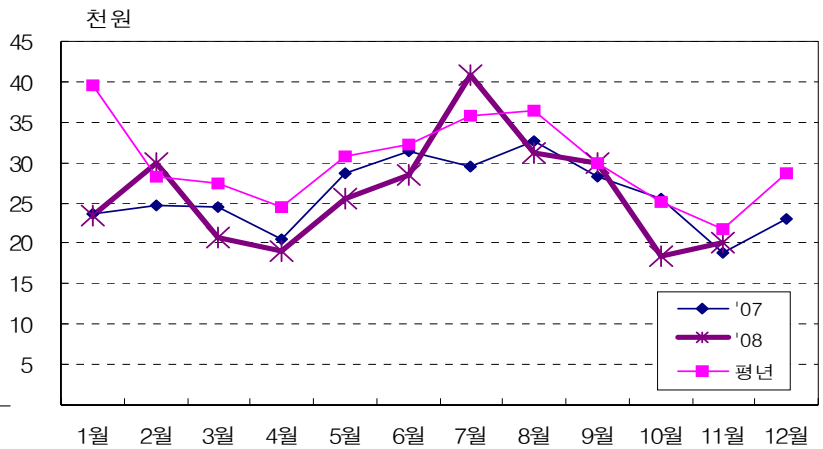
- 건표고는 주산지인 장흥 등의 산지농협 및 산지 표고협회에서 봄과 가을에 실시하는 입찰을 통해 유통되는데, 특히 장흥의 유치농협과 장동농협은 건표고 출하량의 40% 정도를 취급한다.
- 표고버섯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생표고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국내 생산량의 증가와 함께 팽이, 새송이 등 저렴한 대체 버섯류의 증대로 인한 표고의 소비 둔화 때문이며, 건표고 가격하락의 주요 원인은 국내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중국산이 지속적으로 수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4-12. 표고버섯의 가격 추이



주: 1) 도매가격을 생산자물가지수(2000년=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실질가격화하였음.
 2) 건표고 가격은 생표고 환산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환산 비율 7.31).
 자료: 산림청, 『임산물생산통계』, 각 연도.

그림 4-13. 생표고(상품) 도매가격의 계절변동



주: 도매가격을 생산자물가지수(2005.8=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실질가격화하였음.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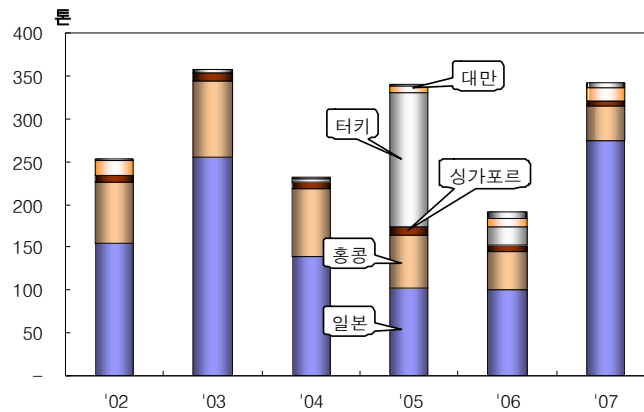
- 표고버섯의 생산은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생표고 가격도 계절적 변동을 보이는데, 특히 특품·상품에서 이러한 계절성이 뚜렷이 나타났다.
 - 고온, 건조, 한파, 폭설 등 기후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
- 향후 표고버섯의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표고버섯의 생산량은 균상재배 방식의 임가 수와 생산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는 경기위축 등 소비심리 위축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또한 원화 약세로 인해 중국산(또는 북한산)의 수입이 다소 주춤거리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소폭 증가하여 국내 표고버섯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2.3. 수출입

- 1980년대 말까지 표고버섯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였으나 1990년 부터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6년 이후 400여 톤에 수준에 머물렀다.
 - 2007년의 건표고 수출량은 약 346톤으로 건표고 생산량의 약 17% 수준이었으며, 생표고 수출량은 약 2톤으로 생표고 생산량의 0.01%에 불과하였다.

- 건표고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과 홍콩이다. 2007년의 수출량은 일본 275톤 (79.5%), 홍콩 40톤(11.7%) 등으로 전체 수출량의 약 90%를 차지하였다.
- 표고버섯 수출이 확대되지 못한 이유는 표고버섯의 국내 소비 증가로 비교적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시장구조가 내수 위주로 바뀌었고 해외시장에서는 저가의 중국산에 밀려 가격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 표고버섯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고품질 위주의 판매 전략과 함께 연중 생산 및 공급체계의 구축, 규격화, 물류비 지원 등이 요구된다.

그림 4-14. 건표고의 국가별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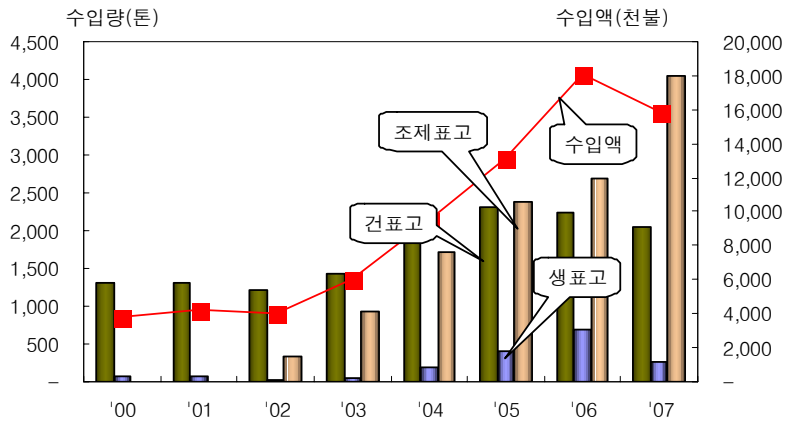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 한국에서 수입하는 표고버섯의 형태는 주로 건표고 및 조제표고로 대부분 중국¹⁸과 북한¹⁹에서 수입 또는 반입된다. 건표고의 2007년 수입량은 2,058톤으로 2005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조제표고의 수입량은 4,054톤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생표고의 수입량은 227톤으로 국내 생표고 소비량의 1%에 불과하다.
 - 조제표고는 통조림으로 가공한 형태로서 사용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식자재 시장을 통해 음식점 등으로 유통되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조제표고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¹⁸ 생표고의 수입관세는 현재(2007.12.31.) 조정관세 42%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건표고는 조정관세 42%, 조제표고는 기본관세 20%가 적용되고 있다.

¹⁹ 북한산 표고버섯은 주로 건표고 형태로 반입되는데 무관세가 적용된다. 남북 교역 이후 반입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6년 11월부터 북한산 표고버섯이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변경, 연간 반입한도(800톤) 운영품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4-15. 표고버섯의 제품별 수입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2.3. 수급 전망²⁰

- 표고버섯 생산은 국내 소비가 중·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재배 방식이 원목에서 톱밥배지로 점차 전환됨에 따라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에는 약 4만 1천 톤, 2014년에는 약 4만 3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은 중국산 또는 북한산을 위주로 계속 증가하여 2009년 약 1만 7천 톤, 2014년에는 약 2만 2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수입 단가의 상승, 중국산에 대한 식품 안전성 강화, 원산지 표시 강화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소비는 최근 경기위축 등 소비심리 위축으로 둔화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건강식품 및 자연식품에 대한 선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1인당 표고 소비량은 2009년 1,129g, 2014년에는 1,203g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총소비량은 2009년 약 5만 4천 톤, 2014년에는 약 5만 8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은 현재 일본 등 국제시장에서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약하여 수출 물량이 많지 않으나, 향후 연중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 수출지원 확대 등 수출

²⁰ 국내생산, 수입, 국내소비 전망치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수출 전망치는 공급(국내생산+수입)과 수요(국내소비+수출) 함수에 의해 추정하였다.

여건이 변화되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에는 약 4,362톤, 2014년에는 약 6,891톤의 표고버섯이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7. 표고버섯 수급 전망

단위: 톤

수급 전망	2007	2008	전 망		
			2009	2014	2019
공 급	56,309	57,373	58,733	65,085	70,919
국내생산	40,185	40,514	41,085	43,496	45,389
수 입	16,124	16,859	17,648	21,589	25,530
수 요	56,309	57,373	58,733	65,085	70,919
국내소비	53,781	53,463	54,371	58,194	61,196
수 출	2,528	3,910	4,362	6,891	9,723
1인당소비량(g)	1,109	1,111	1,129	1,203	1,262

주: 2008년도는 잠정 추정치임.

부 록 1

임업관측월보 (밤)

부 록 2

임업관측월보 (표고버섯)

부 록 3

임업관측월보 (대추, 뽕은 감)

부 록 4

2009년도 임업관측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

D280 /2009. 12

임업관측사업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9년 12월 일 발행 2009년 12월 일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www.krei.re.kr)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965-8401

인 쇄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